Weekly 공감
2011.03.16 NO.101
gonggam.korea.kr
대한민국 성장판 열려라 '규제개혁' P21~47
석 선장 살린 이국종 교수의 '남들이 가지 않은 인술' P8~9
이돈구 산림청장 "희망의 숲은 국민들의 퍼블릭가든" P18~19

규제개혁은 경제성장 촉진제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발 빠른 재정투입과 기업친화형 규제개혁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성장 국가군'에 속하는 6퍼센트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을 심사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나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련된 규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상정된 총 1천54건에 이르는 신설·강화 규제 가운데 3백25건을 중요규제로 심사했으며, 이 중 48.3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57건의 행정규제들을 철회하거나 개선 권고했다. 그리고 전략과제로서 중소기업·농산어촌 등 생산현장의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채용·승진에서 학력차별의 철폐와, 외국인과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정비했다. 그동안 고시, 훈령, 규칙, 예규 등의 형태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각 부처의 법령과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들도 발굴, 투명하게 등록을 완료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상호 보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과거에 손대지 못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입지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이게 됐다.

규제개혁은 비용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실증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발 빠른 재정투입과 함께 기업친화형 규제개혁을 지속한 덕분에 지난해 6퍼센트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규제개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일몰주기 도래 시 효력 상실형 규제 일몰제' 이외에도 '재검토형 일몰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의 일몰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앞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가능해져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도입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처음 도입된 사례로,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불합리한 진입제한으로 경제의 자율경쟁과 활력을 저해해 오던 인허가규제에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점 역시 선진 규제개혁제도를 향한 커다란 진척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녹색성장 모델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바꾼 국가'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OECD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규제개혁은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 원리, 민간 주도, 그리고 국제적 모범관행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일조할 것이다. G

Contents

일러스트 · 남동윤

22

기획특집

기업도 국민도 함께 웃는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창업 ·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로 예비 사장님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원하는 장소에 편리하게 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기업인의 얼굴에 미소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편의를, 기업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표지 이야기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는 여섯 발의 총알을 맞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 조선DB

NO.101
2011.03.16
통권 202호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3.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10

08

58

56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100호를 읽고]

물가 잡혀 서민들 '방긋' 웃었으면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점심에 식당에 갔더니 불과 하루 사이에 음식값이 1천원이나 올랐더군요. 그래서 '긴급점검'에서 다룬 '장바구니 물가 반드시 잡는다' 내용이 반가웠음은 당연지사였습니다. 부디 물가가 잡혀 서민들도 방긋 웃는 날로 회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황복희**

나눔과 상생 기사로 마음까지 따뜻해져

"기획특집 '100점 세상을 위한 공감'을 반갑게 읽었습니다. 요즘 소통, 배려가 중요시되는데 자신이 가진 열정, 시간,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봉사단체, 기업들의 나눔과 상생하는 모습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이런 마음들이 널리 퍼져나간다면 훨씬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석현**

100점짜리 소통의 장이 되는 '공감' 바라

"기획특집 '공감'을 위한 우리 사회의 '100' 잘 읽었습니다. 100세 시대부터, 외국인 100만 시대, 100인 이사회 등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100점짜리 소통의 장으로'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한 수치가 아닌 100점짜리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지애**

미소 가득한 대한민국 널리 알려야

"현대 사회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속에 미소가 가득한 나라임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웃음이 가득한 나라임을 홍보하는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미소국가대표' 대학생 홍보단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참 좋습니다." **이순호**

이 기사, 아쉬워요

박동현 "각계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했으면"

'긴급점검-뛰는 물가와 에너지 절약'은 시의 적절한 기사였다고 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세 기사 모두 일방적 내용 전달 형식으로만 이루어졌고 정부 당국자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각계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회사원, 56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김은경 "실생활 에너지 절약 방법 소개해 줬으면"

'에너지 절약 도전! 5백만원' 기사에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 제도와 함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들을 소개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학생, 24세,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전흥진 "소액대출 관련 상세 정보 아쉬워"

서민대상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 가능한 사회연대은행의 마이크로크레딧 덕분에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성공한 과일가게 사례를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을 위한, 사회연대은행과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소개가 너무 빈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52세, 서울 마포구 망원1동

장준희 "간접광고로 보이는 사진은 자제했으면"

〈공감〉을 읽으면서 기사에 게재된 사진 자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료가 현재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특정 회사나 브랜드를 알 수 있는 간접광고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납니다. 좀 더 중립적인 사진을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생, 26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알립니다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스위스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세계인의 인기투표를 받고 있다. 전 세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7곳을 선정해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함이다. 뉴세븐원더스는 홈페이지 인터넷 투표와 전화 투표를 집계해 11월 11일 7대 경관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로 올라, 최종 후보지 27곳과 경쟁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절실하다. 복잡한 인터넷 투표보다는 전화 투표가 간편하다.

인터넷 투표 | 뉴세븐원더스 홈페이지(www.new7wonders.com) 투표 참여 시 회원가입 필요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멘트 후 '삑'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 선정코드)를 입력한다. 감사 멘트가 나오면 종료. 전화료 약 1백40원 소요

투표 마감 | 11월 10일까지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영상 공모로 '극한기상' 대비합니다

소방방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대비 제5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과 동영상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및 복구현장을 담거나 피해활동 예방 및 발생현장을 담은 내용의 작품이면 된다. 초등학생 이상의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입상작은 정부중앙청사 또는 광화문광장 등에 전시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 | 4월 5일까지

접수 방법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제출
(110-04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27번지 사직동새마을금고회관 7층 (사)한국BCP협회, koreabcp@paran.com

결과 발표 | 4월 15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지원 혜택 | 대통령표창 외 작품 전시 예정

(사)한국BCP협회 ☎ 02-722-7441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2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번데기. 고치. 실. 뽕잎.
4. 크게 소리를 내어 시원하고 당당하게 웃는 웃음이죠.
6.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거나 경고하기 위하여 보내는 전언(傳言). 소통의 주요 수단이죠. 문자 ○○○.
8. 살아 있는 생선을 날로 잘게 썰어서 먹습니다.
9. 가을에 한국에 와 시베리아, 사할린 등지로 가는 철새. 요즘엔 ○○○아빠라는 말이 나오죠.

세로

2. 사람이 활동하거나 기계 등이 작동하는 데 근원이 되는 힘. "고유가 시대에서 ○○○ 절약은 필수다."
3.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산골.
5. 연주나 노래 등을 하는 모임. 콘서트. 열린 ○○○.
7. 무청이나 배추의 잎을 말린 것. 볶거나 국을 끓여 먹죠.
8. 싱싱하고 힘찬 기운. ○○가 넘치다.

〈Weekly 공감〉 99호(3월 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한류 **3** 화요일 **6** 아이돌 **7** 사관 **9** 노트북
세로 **1** 진화 **2** 한일 **4** 요리사 **5** 페이스북 **8** 관노비

〈Weekly 공감〉 9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민정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박은석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선아 · 경북 구미시 신평동
이장현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임지현 ·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문학과 예술로 세상을 그린다

김용택 시인

조선DB

저는 1970년 5월부터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26년간, 2학년만 가르쳤습니다. 2학년 교실은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저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하려고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게 하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게 하고, 어머니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벚꽃이 핀 걸 보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쓰는 방법과 기술이 아닌,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나무 한 그루씩을 심도록 합니다. 1년 동안 그 나무를 지켜보는 거죠. "경수야 나무 봤어?" 묻습니다. "네, 제 나무는 느티나무인데요. 느티나무에 사람들이 놀고 있고요. 그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들판에는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써봐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사람도 보고 시냇물도 보고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도 봤던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물 하나를 자세히 봄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죠. 철학적인 삶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삶을 늘 정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글입니다.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념도 갖고 있습니다. 신념이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과 살아갈 세상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신념을 가르치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창조하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200년 전 만들어진 베토벤의 음악이, 고흐의 그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보게 한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즉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술적 감성은 세상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힘든 것을 털어버리고 삶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자연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삽니다. 사람이 자연입니다. 내 앞의 자연을 바라보지 않고 인왕산만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앞의 어머니를 자세히 보고, 밥을 짓고 있는 내 아내를 자세히 보고, 신문을 보고 있는 내 남편을 자세히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마리북스 간)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 중동 민주화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창의적 정책들과 그 실행의 모습들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생활의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외국인 등록 100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그간 많이 부족했던 듯싶네요. 국가적 공동체를 이루는 한 일원으로서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의 기치 아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야겠습니다.

3. 저렴한 분양가와 편리한 교통으로 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백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1.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부쩍 와닿는 이때,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서민의 한 사람으로 참 반갑게 들립니다. 끝을 모르는 물가를 꼭 잡아 서민들의 마음에 웃음꽃을 하나 더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2. 100회 특집에 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공감〉 첫 호부터 열심히 챙겨봤는데 그동안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도 많이 되고 제목 그대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100회를 터닝포인트 삼아 대한민국이 모두 공감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3. 일전에 산에 갔더니 나물들이 많이 나와 있더군요. 미나리, 쑥 등 봄나물의 종류와 효능을 알리는 기사가 있다면 여행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7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숨은 유공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합니다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유공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여 포상하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를 실시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 선행을 실천**하는 등 주변에 큰 **감동과 희망을 준 사람**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간 | 2011년 연중

추천방법 | 인터넷, 전자우편, 일반우편

인터넷 www.mopas.go.kr 접속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접속 → 추천서 작성 · 저장

전자우편 추천서 작성 → 전자우편 발송

보내실 곳 sanghun114@korea.kr

일반우편 추천서 작성 → 일반우편 발송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추천서 서식은 인터넷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에서 다운로드 또는 읍 ·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비치 (www.mopas.go.kr)

포상시기 | 2011년 6월, 12월 예정

단, 6월 포상은 4월 6일 접수분까지를 대상으로 함

석해균 선장 살린 '집념의 의술' 이국종 교수

"사회적 약자 치료하는 삶에 자부심"

여섯 발의 총알을 맞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석 선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외상외과는 총상이나 각종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는 분야다. 좀 더 편한 의술(醫術)의 길도 있었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인술(仁術)을 택한 이 교수가 석 선장과 함께한 45일간의 치료기를 공개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58) 선장의 생명을 살린 아주대병원 외상(外傷)외과 이국종(42) 교수는 3월 10일 새벽 2시까지 메스를 잡고 있었다. 비장 파열로 응급실로 밤중에 실려온 40대 남자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었다.

"힘들지 않으냐"고 묻자 그저 웃었다. 그리고 "늘 있는 일인데…"라고 했다.

1월 21일 삼호주얼리호 피랍 선원 구출작전 당시 복부 관통상을 입은 석 선장과 그의 치료를 맡은 이 교수는 45일째 고락(苦樂)을 같이하고 있다. 석 선장 못지않게 '닥터 이국종'의 의술과 인간애는 또 다른 영웅을 탄생시켰다. "그동안 집에 딱 하루(3월 8일) 갔어요. 하루도 비울 수 없었어요."

이 교수는 "언제 환자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 항상 3분 대기조 생활을 한다. 견딜 만하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한 의사 출신 간부는 "이국종은 바보 같다"고 말했다. 장기 파열, 손과 다리가 잘려 나간 환자를 보는 일이 돈벌이도 안되고 '3D 중의 3D'로 저어하는데 그런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큰 대학병원 외과 의사가 오후 11시에 대장암 환자를 수술하면 인센티브가 생긴다.

1990년대 중반 이 교수가 전공을 선택할 무렵에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가 최고 인기였다. 이 교수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된 이후 외상

이태경 기자

이태경 기자

이태경 기자

'의료계의 3D'로 불리는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은 '바보 의사'다. 하지만 그가 석해균 선장 치료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의사임에 충분했다.

외과를 세부 전공으로 택했다. 한마디로 '돈이 안되는' 과목이었다. 외상외과는 단순하다. 칼에 찔린 조직폭력배나 총상 환자, 공장에서 볼트가 몸에 박힌 환자 등을 치료한다. 연구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잡지에 논문을 실을 기회도 적은 분야다.

왜 외상외과 의사의 길을 택했나.

"2000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뒤 간·담도·췌장 환자를 치료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 몸이 뭉개져 안타깝게 죽어 가는 이들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신속히 잘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다. 마침 당시 외과 주임교수가 권했고, 외상의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후회하지 않나.

"응급센터를 찾는 환자는 육체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을 치료하는 현재의 삶에 자부심을 느낀다. 후배들이 외상외과를 지원하기에 '개업하기 힘들고 취직자리도 없다'고 말렸다. 하지만 수술장에 들어설 때는 막장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눈부신 수술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석 선장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농담을 할 정도로 좋아졌다. 3월 10일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다. 석 선장은 예전에 인도네시아 해적들이 도끼로 위협했을 때 1달러 지폐를 던졌다고 한다. '내가 명색이 선장인데 해적에게 굴복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석 선장이 걱정하는 게 있나.

"생계 걱정으로 잠을 잘 못 이루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은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적 영웅이 돼 있지만 곧 잊어질 것이란 사실을 선장님도 잘 알고 있다."

이 교수는 총알이 6개나 박혀 만신창이가 된 석 선장을 살려냈다. 한국 후송이 위험하지 않았나.

"오만 가기 전 1월 24일 석 선장의 혈액검사 결과를 봤다. 일반 의사들이 보면 혈소판이 낮다는 데만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백혈구 상태를 보고 몸의 여러 곳에 범발성 혈액응고장애(DIC)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는 혈관을 막거나 출혈을 일으키며 여러 장기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다.

한국에 오자마자 16유닛의 혈소판을 주입했다. 일반 의사들은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면 금방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혈전증(피떡)이 언제든지 생겨서 환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석 선장은) 하루에 X레이를 6번 찍고 2백 가지 검사를 한 적도 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오후 수원 아주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있다.

총상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나.

"엽총 사고 환자를 치료한 적은 있지만 실제 총상은 석 선장이 처음이다. 총상 전문가라서 오만에 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분당 5천회의 속도로 고속 회전하는 기계에서 볼트·너트 등이 튕겨져 나와 몸에 박힌 근로자들이 온다. 이들의 부상을 치료하는 게 총상과 거의 비슷하다."

석 선장보다 더 중한 환자가 있었나.

"석 선장의 진단명은 14가지다. 내가 치료한 환자 중 20가지가 넘는 사람도 있다. 2톤 기계에 깔려 가슴·복부·골반 등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으스러진 40대 남성도 회생시킨 적이 있다. 교과서에는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이 10~20퍼센트라고 돼 있지만 우리 병원은 40~50퍼센트다."

이 교수에게 "왜 오만행을 결심했느냐"고 물었다.

"그냥 나랑 같은 해군 출신이라서요. 환자 치료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G

글·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이국종 교수는

1969년 서울생으로, 아주대 의대 1회(88학번)로 1995년 졸업한 외상외과 전문의. 2000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뒤 간·담도·췌장 환자를 치료했으나 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숨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외상의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2002년부터 아주대병원에 재직 중이며 지금은 중증 외상 특성화센터 소장 겸 부교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외상외과와 영국 로열런던병원 트라우마 센터에서 연수했으며 중증 외상환자 1천3백여 명을 치료해 왔다. 이런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주한미군 의무사령관·백악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 해저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진해일이 덮친 뒤 동북부 지역의 나토리 시내에 화재가 발생,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일본 최악의 지진 '열도 마비'

이 대통령 "최선 다해 도와라"… 기상청 "한반도 직접 영향 없다"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8.9의 지진이 발생하며 대규모 지진해일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도호쿠(東北) 지역을 강타했다. 이번 지진은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발생, 일본 혼슈에 가로막혀 있어 우리나라에는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상청을 비롯해 정부 관련 부처도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비상근무에 들어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시각 3월 11일 오후 2시45분경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1백79킬로미터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8.9의 지진이 발생, 10미터 높이의 지진해일(쓰나미)이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했다.

일본기상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49분경 일본의 태평양 인접 해안에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했다고 기상청이 3월 11일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7.9로 발표했다가 8.4로 수정했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8.9라고 밝혔다. 도호쿠 지방의 진도는 최고 7로 관측됐고, 이후 최고 진도 7.4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다.

이날 지진의 규모는 일본에서 1백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지난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 대지진은 규모 7.2였으며, 지난 1923년 9월 무려 14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간토 대지진은 규모 7.8이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한 피해가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센다이 공항 활주로가 쓰나미로 인해 침수됐으며 도쿄 디즈니랜드도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와이·괌도 영향권 '촉각'

일본 교도통신은 지진 이후 도쿄 전역 14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인명 피해도 큰 것으로 속속 전해졌다. 지지통신은 센다이 해변에서 2백~3백명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주(駐)센다이 총영사관은 유선전화를 통해 한인단체와 통화를 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일본 도호쿠 지방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이날 현재 1만1천5백72명으로 집

3월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대규모 강진으로 센다이 공항이 처참하게 파괴돼 비행기와 자동차가 뒤엉켜 있다.

계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지진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관계 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유례 없는 대재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나 구조 활동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일본의 사태는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사태로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일본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다만 이번 일본 지진 사태가 향후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각 부처가 이를 점검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문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최대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일본 지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와 국민에 대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도 119구조대 파견 등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해 중앙119구조단(잠정적으로 40명) 파견을 포함, 지진 피해와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외신들은 일본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하와이에서도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우리는 울릉도 등 1백곳서 지진 통합 관측

일본을 덮친 대지진과 지진해일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진과 지진해일을 관측하고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진의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도 일본 등에 비해 작지만 발생 위치가 매우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강진(強震)은 없었으나 중진(中震)에 해당하는 규모 4~6의 지진은 모두 10차례 관측됐다. 최대 지진은 1980년 1월 평안북도 의주·삭주에서 발생한 규모 5.3 지진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진해일은 동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다. 1983년 5월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과 지진해일, 1993년 7월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과 지진해일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통합지진관측망을 전국 1백 곳에 운영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기상청이 49곳의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질자원연구소 34곳, 한국전력연구원 13곳, 원자력안전기술원 4곳 등을 두고 있다. 일본기상청 관측소 22곳, 일본국립방재연구소 12곳, 중국지진국 10곳으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받는다.

특히 이번처럼 지진과 함께 지진해일이 몰려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007년에는 울릉도에 해저 지진계와 해일 파고계를 설치해 지진해일을 감시하는 '첨병'을 두고 있다. 일본 서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안까지 도달하는 데 1시간 30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관계자는 “지진해일의 경우 발생 직후 영향력과 동해안 도달 시간 등을 측정하는 시나리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는 '신속 대응'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6개 부처 '드림팀' 24시간 비상 가동

범정부 총력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문성 살려 신속한 의사결정

구제역이 가져온 고통과 시름으로 잠들 수 없는 곳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운영돼 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대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해 70여 일간 구제역과의 전쟁을 지휘해 온 본부 역할을 맡아왔다.

구제역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곳에서는 매일 오전 8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주재하는 상황회의가 시작된다.

대책본부가 문을 연 지 72일째인 3월 10일 오전 8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대책본부 총괄조정관(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주재하는 상황회의가 열렸다. 이날 상황회의에서는 최근 구제역의 기세가 꺾이고 있어 구제역 매몰처분지 관리가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상황회의를 주재 중인 장석홍 조정관 앞쪽으로는 전국의 각종 사고와 기상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대형 영상화면이 펼쳐져 있다. 장 실장 뒤로 '구제역 발생 및 대응 상황' 게시판이 보인다.

3월 10일 현재 13일째 "신규발생 없음"

여기에 적힌 구제역 의심 신고건수 누계가 이날 현재 2백2건. 지난 2월 25일 울산 울주군에서 들어온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를 끝으로 이날까지 13일째 신규 구제역 발생은 없는 상황.

대책본부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서기관은 "구제역 의

3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한 구제역 가축 매몰지 현장을 방문하여 침출수 안전관리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심신고는 지난 1월 초에 집중됐다"며 "1월 1일의 경우 구제역 의심신고가 하루 10건이 접수되기도 했으며 1월 9일까지 매일 대여섯 건씩 구제역 의심신고가 이어져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매일 이렇게 전날부터 그날 새벽까지 발생한 전국의 구제역 관련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상황회의를 마친다. 상황회의 중에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3월 10일 상황회의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끝났다.

상황회의 후에는 대책본부 주요 간부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구제역 대책회의를 갖고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에 대한 현황 보고와 정책결정을 논한다.

그리고 매일 오후 6시 또 한 번의 상황회의를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날 저녁과 새벽에 챙겨야 할 부분들을 확인한다. 상황회의가 끝나면 야간근무자는 다음 날 새벽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다시 오전 상황회의를 통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24시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대책본부가 문을 연 것은 가축질병(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출범 초기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총 11개 부처에서 구제역 관련 인력을 파견했으며, 구제역 신규 발생 건수가 감소하자 지난 2월 22일부터는 6개 부처 인력들을 중심으로 매몰지 관리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부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드림팀'을 구성,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친 것은 이번 대책본부가 처음이다.

매몰지 정비·관리에 역량 집중

장 조정관은 "그동안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 종합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각 부처의 역할 분담은 이렇게 이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과 일반적인 매몰지 관리를 총괄하고, 환경부는 상수원 지역 매몰지 정비, 지하수 수질 검사 등 환경관리를 맡는다. 또 국토해양부는 매몰지 조사 및 보강정비에 따른 기술지원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활동과 매몰지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침출수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들은 그간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금년 1월 초 사이를 꼽았다.

매일 오전 8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회의.

장 조정관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날씨가 워낙 추워 소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매몰작업과 구제역 방역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가운데 사상자도 상당히 발생해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구제역은 확산되고, 언론에서 비판적인 글을 쏟아낼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모든 자료 백서로 정리… 제2 구제역 막는 매뉴얼로

장 조정관은 "24시간 철야 근무에, 비판 앞에 놓인 심적인 부담까지 이중으로 힘든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연의 일에 소홀할 수 없었다"고 대책본부 근무자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지만 대책본부는 업무 종료를 할 수 없다. 매몰지와 관련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책본부는 전국 매몰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3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비·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 조정관은 "구제역 파동이 다시 없기 바라는 것이 대책본부 근무자들을 모함한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는 구제역 최초 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 가축 매몰지 환경문제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의 소를, 돼지를 다시는 이렇게 허망하게 잃지 않기 위해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범정부 부처가 총출동해 구제역과 맞서고 있는 대책본부도 이번 전쟁의 끝이 보일 날까지 24시간 불을 밝힐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매몰지 관리 및 먹는 물에 의심이 들 경우 119 신고
구제역 관련 자료 검색: 구제역 통합 사이트 (www.fmd.go.kr 또는 구제역.kr)

3월 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임관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신임 소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누구??십니까? 장난이죠?”→“대통령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임관 축하합니다”

신임 소위들 감동시킨 청와대발 문자메시지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3사관학교와 학군 등 6개 학교 생도들이 창군 이래 첫 합동임관식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합동을 강조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되어달라고 당부한 뒤 신임 소위 전원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다. 뜻밖의 대통령의 문자에 신임장교들과 그 가족은 열렬한 감사회신으로 환영했다.

“필승! 국가에 충성을 다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조국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G20세대의 초임장교로서 미래 전장의 주역, 선진강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장교로서 국군장병들이 군병원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예의 간호장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슴 벅참, 뜨거운 열정… 올해 임관한 대한민국 신임 장교들의 조국 수호의 다짐들이다. 이 글귀들은 지난 3월 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합동임관식에서 계급장을 단 신임 소위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격려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낸 회신들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3사관학교와 학군을 아우르는 합동임관식은 1948년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연설만으론 섭섭해서 5천여 명에 문자 보내”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은 3월 6일 최근 이 대통령의 격려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임 장교들이 1천여 건의 감사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청와대 페이스 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임장교와 가족들이 답신

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와 놀라움과 고마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월 7일 방송된 제60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신임 장교들과 문자를 주고받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임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 젊은 장교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임관식 연설만으로는 섭섭하다 싶었다'는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격려문자 메시지를 신임 소위 5천3백9명 전원에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 번 임관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안 있어 회신이 오기 시작했다.

"충성 소위 이OO입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엔 걱정 없으시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임관식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신임 장교들의 놀라움과 감사, 다짐의 문자들은 이어졌다. 한 장교는 "대통령께 문자도 받아보고 장교 되기를 정말 잘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회신을 보내기도 했다.

"누구??십니까?", "장난하지 마시고 누구십니까"라며 진짜 대통령의 문자인지 묻는 일부 장교들에게는 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 번 임관 축하합니다"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군복 색깔은 달라도 모든 군은 국민의 군대"

한편 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임관식에서 "군복 색깔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군은 오직 조국의 군대 국민의 군대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하나의 사명만이 있을 뿐"이라며 창군 이래 처음인 합동임관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비대칭전력 등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이 시급하며 특히 전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합동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강한 군사력과 굳센 정신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각군이 하나가 되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당부에 대한 답은 신임 장교들의 문자를 통해 이미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국수호를 위해 출신에 관계없이 단결하여 나라를 지켜 대통령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필승!" G 글·박경아 기자

강미령

공군소위로 임관한 최성규(가운데)씨와 어머니 강미령씨, 아버지 최용준씨.

"대통령 메시지에 아들 걱정 덜었어요"

공군소위 아들 둔 강미령씨, 청와대 게시판에 글

신임 장교들에게 보낸 이명박 대통령의 격려문자 메시지는 신임 장교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이번 합동임관식에서 공군소위로 임관한 최성규(24) 씨의 어머니 강미령(51)씨는 3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와대광장 자유게시판'에 '합동임관식을 마친 아들에게 날아온 감동의 문자메시지'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그러한 감동의 순간을 전했다.

진주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장을 지내다 지난해 12월 전역한 최용준(54) 준장의 아내이기도 한 강씨는 "지난해 말 남편의 전역으로 '민간인 가족'이 되었다가 아들을 공군에 보내며 다시 군인가족이 되었다"며 '조종사의 아내'로 살다 '조종사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고뇌를 이렇게 적었다.

"아들을 사관학교로 보내며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남편이 비행을 하러 집을 나선 동안 가슴 졸였던 순간들을 다시 만나게 될까, 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같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아들이 합동임관식 단상에 선 순간 벅차오르는 감동 반, 군인으로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걱정 반으로 마음이 복잡했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의 문자에 큰 위안과 감동을 받았다고 적었다.

강씨는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친 것이 아닌가 하고 웃어넘기려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엄마가 되어서 걱정스런 마음을 놓아버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 문자메시지만큼이나 우리 아들들을 대통령님께서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제 좀 더 웃어보려고 한다"고 감사와 안도의 심정을 적었다.

강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게시판에 글 올린 날을 돌아보며 "전날 받은 문자메시지의 감동 때문에 그동안 가슴에 쌓아온 이야기들을 청와대 게시판에 편안하게 풀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26년간 오늘 배웅하는 남편 모습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오다 아들이 조종사의 길을 걷게 되어 한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푸근해지는 거예요."

아들 역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평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아들 최 소위는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 답신을 보낸 뒤 수첩을 꺼내 이런 다짐을 적었다고 한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약속합니다. 가장 강하고 믿음직스런 대한민국의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조종사 아버지를 따라 16번 이사와 전학을 반복하면서도 늘 조종사가 꿈이었던 아들"이라고 말한 강씨는 "앞으로 아들이 겸손하고 제자리를 아는 군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된 울산 태화강변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왼쪽 위). '희망의 숲'에 심을 나무로 선정된 왕벚나무(오른쪽 위)와 소나무(왼쪽 아래), 배롱나무(오른쪽 아래).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 주세요"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다. 우리나라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도 개최된다. 어느 때보다 지구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올해 식목일을 전후해 전국 산림과 하천변에 '희망의 숲' 과 '탄생목 심기' 행사가 열린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 우리 강과 숲을 푸르게 가꾸자는 뜻이 담겨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땅 등 2만헥타르의 공간에 '희망의 숲'이 조성된다. 이는 서울 남산의 6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면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가 10월 우리나라(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식목일인 4월 5일을 전후해 국민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직접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희망의 숲' 나무 심기 행사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3월 20일까지 국민 신청 받아 전국 38곳서 진행

'희망의 숲' 조성 대상지는 주민이 접근하기 좋고 주변 경관거점(36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전국 38곳(한강 4, 금강 8, 영산강 8, 낙동강 18)으로, 이곳에 모두 3천8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이곳에 심게 될 나무는 해당 지자체별로 수변 생존력, 수리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큰 나무 4천8백64그루, 작은 나무 3만7천2백35그루와 초화류 등이 식재될 예정이다.

강별 주요 수종을 보면, 한강의 경기도 여주군은 여주팔경의 하나인 팔수장림(八藪長林) 구현을 위한 '소나무'를 심는다. 팔수장림이란,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강변의 무성한 숲이 강에 비치는 전경을 일컫는 말로, 정조 때 벌채로 사라진 절경이다.

금강의 충남 공주시는 습한 지역에서 자생력이 강하고 지역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이팝나무'를 선택했다.

영산강의 광주 광산구는 인근 승촌지구의 왕벚나무길과 이어지는 경관 연출을 위해 '왕벚나무'를, 낙동강의 경남 창녕군은 풍압과 침수에 강하며 푸른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배롱나무'를 주종으로 심기로 했다.

'희망의 숲' 나무 심기는 지난 2월 21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20일까지 국민 신청을 받은 뒤 3월 말부터 한 달여간 전국 38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개인, 기업, 단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동안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자 사연 타임캡슐에 20년간 보관

'희망의 숲' 나무 심기 참여는 해당 지역의 식재 수종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나무를 직접 가져와서 심으면 된다. 나무가 없다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1백30곳)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심을 수 있다.

산림청은 참가자들이 이 행사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신청서 접수 때 '숲' 명칭도 공모한다. 최종 선정된 숲 명칭과 의미에 대한 설명은 알림표지판에 써서 조성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다.

식재된 나무에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써넣은 개인·가족·단체 명의의 개별 표찰을 달고 참가자들의 추억과 사연은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와 별도로 식목일을 전후해 미취학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탄생목 심기' 행사도 연다.

'탄생목 심기' 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경기 남양주 수동면, 강원 양양군 현북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충북 청주시 용정동, 전남 순천시 낙안면 등 전국 국유림 8곳이다. 만 2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이 대상이다. 가족들이 심은 나무에는 유아의 이름표를 달 수 있으며 가족들이 언제든 찾아가 직접 심은 나무를 가꿀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희망을 담은 공간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들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는 강변 숲은 자연과 지역의 정서가 어우러지는 테마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산림청 1588-3249 (www.forest.go.kr)

희망의 숲 행사 관련 지자체 연락처

수계별 지자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강	경기	광주시	www.gjcity.go.kr	031-760-4565
		여주군	www.yj21.net	031-887-3106
		양평군	www.yp21.net	031-770-2612
	충북	충주시	www.cj100.net	043-850-6540
금강	충남	공주시	www.gongju.go.kr	041-840-2629
		논산시	www.nonsan.go.kr	041-730-3418
		연기군	www.yeongi.go.kr	041-861-2952
		부여군	www.buyeo.go.kr	041-830-2417
		서천군	www.seocheon.go.kr	041-950-4152
		청양군	www.cheongyang.go.kr	041-940-2378
	전북	군산시	www.gunsan.go.kr	063-450-4492
		익산시	www.iksan.go.kr	063-859-5553
영산강	광주	서구	www.seogu.gwangju.kr	062-360-7124
		남구	www.namgu.gwangju.kr	062-650-8278
		북구	www.bukgu.gwangju.kr	062-410-8484
		광산구	www.gwangsan.go.kr	062-960-8683
	전남	나주시	www.naju.go.kr	061-330-7963
		담양군	www.damyang.go.kr	061-380-2650
		무안군	www.muan.go.kr	061-450-5765
		함평군	www.hampyeong.jeonnam.kr	061-320-3327
낙동강	부산	북구	www.bsbukgu.go.kr	051-309-4531
		사하구	www.saha.go.kr	051-220-4541
	대구	달성군	www.dalseong.go.kr	053-668-3165
	경북	안동시	www.andong.go.kr	053-840-5393
		구미시	www.gumi.go.kr	054-450-6334
		상주시	www.sangju.go.kr	054-537-7610
		의성군	www.usc.go.kr	054-830-6592
		고령군	www.goryeong.go.kr	054-950-6158
		성주군	www.seongju.go.kr	054-930-6337
		칠곡군	www.chilgok.go.kr	054-979-6277
		예천군	www.ycg.go.kr	054-650-6154
	경남	창원시	www.changwon.go.kr	055-225-4662
		김해시	www.gimhae.go.kr	055-330-3814
		밀양시	www.miryang.go.kr	055-359-5525
		양산시	www.yangsan.go.kr	055-392-3173
		의령군	www.uiryeong.go.kr	055-570-2772
		함안군	www.haman.go.kr	055-580-2083
		창녕군	www.cng.go.kr	055-530-1815

이돈구 산림청장

“희망의 숲은 국민의 퍼블릭가든이죠”

산림청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 외에도 산림청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준비로 바쁘다. 지난 3월 10일 이돈구 산림청장을 만났다.

서경리 기자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돈구 산림청장.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격적인 나무 심기 시즌을 맞아 우리 산림청은 이달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땅 등에 서울 남산 전체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2만헥타르에 나무 3천8백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학자 출신답게 이돈구 청장의 목소리는 조근조근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산림청 역사상 최초로 학자 출신 산림청장에 취임했다.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됐는데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교수직에 있을 때와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서는 한번 이야기하면 곧바로 실행이 된다는 점이죠. 저보다 더 머리 좋고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희망의 숲 추진 조성사업 추진 배경은 국민 누구나 나무 심기에 직접 참여해 아름다운 내 고장의 강을 가꿀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국 38곳, 59헥타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데요.

“희망의 숲이 조성되면 주민과 국민의 정원이 되는 동시에 국민 휴식공간 38개가 새롭게 탄생하는 셈입니다. 희망의 숲이 조성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수목이 잘 자라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비료도 주고 나무를 돌보는 ‘숲 관리의 날’도 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봄 산불이 자주 발생해 손실을 크게 입는데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봄철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4백78건의 산불이 발생합니다. 피해 규모는 1천1백61헥타르에 달하죠. 그 가운데 봄철 발생 건수가 66퍼센트인 2백96건이고 피해면적은 91퍼센트인 1천53헥타르에 달합니다.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3퍼센트로 가장 많고 다음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26퍼센트입니다. 담뱃불 실화도 10퍼센트에 달하고 그 외 성묘객 실화가 6퍼센트, 어린이 불장난 등 기타가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들어갔는데 금년 봄철 산불의 특징은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산림청장에 취임한 날도 산불 상황실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봄철 기상전망은 3월에는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4월 초순에는 예년보다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구제역 방역 등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분산돼 있고, 특히 4월 27일에는 강원도 등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걱정입니다."

선거와 산불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 관심이 구제역이나 선거에 쏠리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징크스가 깨지긴 했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 산불이 많은 것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때문이었죠.

올해 봄철 산불 방지 여건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태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16일 전국 산불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의 산불대비태세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산불감시원 2만5천여 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고 감시원이 산불을 발견하고 긴급버튼을 누르면 산불 발생 위치가 산불 상황실에 바로 전달되는 '산불위치 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GPS 기능을 갖춘 신고단말기 1만4천 대를 보급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진화헬기 47대를 이용해 30분 내에 출동해 대형산불로 번지기 전에 초동진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산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산물의 경제적 가치보다 오히려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재화입니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 가치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은 약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7.1퍼센트, 농림어업 총생산의 3배, 임업 총생산액의 18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경관보전기능 및 보건·치유 기능'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면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0'자가 하나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세계 산림의 해'를 맞아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지요.

"정부 차원에서는 기념식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와 연계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가질 계획입니다. 숲 속 음악회, 백두대간 탐방, 산악레포츠 행사 등 산림청에서 기존에 하던 다채로운 산림문화행사를 세계 산림의 해와 연계해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UNCCD 총회가 올해 열리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UNCCD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국제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가뭄피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협약으로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입니다. 2년마다 1백94개 회원국 정부대표 및 장관급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의 녹화성공역사와 녹색성장 정책이 더 많은 나라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대비한 정책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2009년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61.1퍼센트가 산림치유에 대해 알고 있고, 이 가운데 81.5퍼센트가 '산림치유가 효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산음자연휴양림 내에 치유의 숲을 시범적으로 개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장성 편백숲과 횡성 숲체원에 치유의 숲을 추가로 조성해 올 4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G

글·김성동 기자

구제역 2차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오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매몰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질 • 환경 • 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40개 민관조사팀이 매몰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3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간 환경전문가 감시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침출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막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를 뽑아내 멸균 소독한 뒤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질 관리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4000여 곳의 수질을 검사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민관합동 TF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기 획 특 집

규제개혁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는다

일러스트 · 남동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옆집 아저씨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창업과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로 예비 사장님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원하는 장소에 편리하게 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기업인의 얼굴에 미소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편의를, 기업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불합리한 법과 규제의 그물을 말끔히 거둬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OK할 때까지 개혁은 '진행형'

기업도 살리고 세입자도 살린 두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본받아야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내수 확대 폭 축소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 물가불안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체감형 규제개혁 노력이 계속돼야 할 이유다.

조선DB

2008년 1월 20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내 한 사거리 코너에 있는 전신주가 옮겨지고 있다. 이 전봇대는 이명박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이 됐다.

경기도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공업민원팀장인 김재홍씨. 6급 공무원인 김 팀장은 2009년 관내 반도체업체인 H사의 공장증설 계획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다. 18조원 규모의 공장증설 계획을 세웠지만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구리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돼 공장증설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 팀장은 해당 업계의 기술적인 특성까지 연구해 공장증설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김 팀장의 건의를 검토한 관계기관은 지난해 2월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관계법령 개정 후 H사는 적기에 신공정시설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만 1천1백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폐수배출 규제로 공장증설이 안되던 L반도체웨이퍼 생산업체와 수도권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공장증설을 못하던 H식품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관계법령 및 해당 기술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설득함으로써 극복하게 했다.

L반도체는 공장증설에 1천6백억원을 투자해 1백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라면 등을 생산하는 H식품업체는 1983년 공장 설립 후 처음으로 3백1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었고, 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비현실적인 규제들 앞장서 해결

김 팀장처럼 비현실적인 규제에 발이 묶인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주민센터의 최영현 총괄팀장(6급)처럼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일에 앞장서는 공무원들도 있다.

최 팀장은 주택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세입자를 구제했다. 지난해 2월 광산구 관내 세입자 8백여 세대는 경매통고를 받았다. 임대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관련 법망의 허술함과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혔다. 피해자들은 광산구청에 피해구제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의 담당자가 최 팀장이었다.

최 팀장은 임대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개업자가 주택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알아냈다. 최 팀장은 끈질긴 설득 끝에 관내 세 명의 공인중개업자로부터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

중개업자로부터 고지의무 위반 자술서를 받아냄으로써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세입자들은 최 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팀장, 최 팀장 모두 공무원으로서 규제개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섬김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섬김이 대상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시행된 표창이다. 고질적인 민원, 국민 불편, 기업애로를 해결하거나 투자유치 등에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며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을 포상하는 제도다.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중점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 놓고 있다. 권위를 벗어 버리고 대 기업 서비스, 대 국민 서비스에 앞장서는 공무원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8년 1월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선거 때 목포 대불산단에 가 봤는데, 산단 옆 교량에서 대형트럭이 커브를 도는데 폴(전봇대)이 서 있어 잘 안된다"며 "폴을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됐다. 지금도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산업단지 전봇대 문제는 단지 입주 업체들이 수년 동안 제기해 왔던 민원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 후 산업자원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이 실태조사에 나서 사흘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는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3년 간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천6백98개 규제개혁 과제 중 창업절차 간소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민원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등 3천3백26건에 대한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폐지 등으로 1백만명이 혜택을 입었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중소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거래제한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신기술 기준 정비, 입지·행위 제한 완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규제도 대폭 정비했다. 기존 발전소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허가 면제, 고궁, 박물관 등을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 행사시설로 개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영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주민센터 총괄팀장(왼쪽 사진)과 김재홍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공업민원팀장.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가 41.6퍼센트로 2009년(38.9퍼센트)에 비해 2.7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에 실시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에서도 전년도(19위)에 비해 3단계 상승한 16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경제 등 대내외적인 상황은 부단한 규제개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내수 확대의 폭 축소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물가불안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 과제 1천1백56개 선정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체감형 규제개혁 노력이 계속돼야 할 이유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등으로 정하고 규제개혁 과제 1천1백56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1백20개이고 진입규제 정비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가 1백73개다.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는 74개다.

서민생활안정(1백22개), 국민부담 경감(5백56개)을 위한 과제가 전체의 58.7퍼센트인 6백78개로 서민체감형 규제개혁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홍 팀장, 최영현 팀장 같은 공무원들이 바로 서민체감형 규제개혁을 실천하는 주인공들이다. G

글·김성동 기자

옥상놀이터 설치에 관한 규제개혁 이후 옥상을 놀이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새누리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옥상 놀이터 규제' 푸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한때는 놀이터 설치 까다로워… 보육 종사자 목소리 반영 늘어

'100년대계'인 교육과 보육에선 이명박정부 출범 후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혁들이 많았다. 교육의 부담은 줄이고 복지 서비스나 관련 제도의 질을 높이는 등 학계와 보육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눈에 띈다.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새누리어린이집. 6세 '배려반' 아이들 10여 명이 점심식사 후 옥상으로 올라간다. 따뜻한 봄날, 모처럼 옥상놀이터에 올라온 아이들은 봄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미끄럼틀도 타고 달리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택가인데다 공공놀이터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놀 만한 야외 공간이 없었는데 옥상을 다용도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니 더없이 좋더라고요. 텃밭을 가꿔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여름엔 간이 수영장을 설치해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건물 내에 실내놀이터와 실외놀이터가 있지만, 아이들은 확 트인 옥상공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누리어린이집 하춘순(57) 원장의 말이다. 하 원장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위해 이따금 어린이집에서 키우는 새끼강아지도 옥상에 풀어주곤 한단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여전히 규제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규제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도 그중 하나다. 2009년 7월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놀이터 설치 시, 보육시설의 총 정원을 기준으로 놀이터 필요면적을 산정하고 옥내놀이터는 옥상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에 아이사랑카드도

하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재는 놀이터 필요면적을 보육시설 총 정원이 아닌 보육시설의 동 시간대 이용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옥내놀이터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도 록 개

이경민 기자

선했다. 이를 통해 면적 부담을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60.7퍼센트로 경감해 놀이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한 것도 보육 부문 규제개혁의 좋은 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를 발급해 수요자인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2008년 12월)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해 보육서비스 이용 시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포함한 51건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입대 마이스터高 졸업생 특기분야 배치

개정안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공간이 기존 1~3층에서 5층으로 확대,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보육시설 인가 시 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 체계화된 만큼 남은 기간에는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규제과제를 발굴, 완벽한 제도로 개혁해 나갈 예정이다.

"유한공고 전자기계과를 졸업 후 아는 분의 추천으로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입영시기가 고민이었지만 전문계고(특기고) 졸업자도 입영연기가 가능해져서 입영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경험을 좀 더 쌓고 제대 후 돌아올 자리를 확실히 해두고 입영할 생각입니다."

안양에 사는 곽용희(21)씨는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했지만, 입영 문제로 고민했던 경우다. 곽씨는 병역연기제도 규제개혁 이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곽씨처럼 입영연기 혜택을 받은 전문계고 졸업자는 총 32명"이라고 전했다.

기존 병역법은 대학 진학자들에게만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곽씨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이 아닌 일반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병역 연기가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고졸자 특히 전문계고 졸업자들은 '군필' 전 취업이 쉽지 않았다. 취업 이후에도 입영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연구지원 확대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2008년 12월)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입대할 경우에는 군 특기 분야에 배치하도록 해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2010년 1월)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2010년 12월)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나 1인당 교육비 현황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유지, 이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자금대출이 재학 중에도 이자를 부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한다는 부작용을 보완해 '든든학자금'도 도입했다. '든든학자금'이란 재학 기간에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후 일정기준 소득 이상 발생 시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검정교과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산업체 학교의 설립을 제한하는 세세한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 대입자율화,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하지만 "자율성을 존중한 만큼 다양한 과제와 그에 따른 성과에 비해 혼란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이명박정부 4년째인 올해부터 그간 완화·개선된 규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잔여규제들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한편,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수요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G

글·박근희 기자

“공휴일 주차 허용… 강남서도 장보러 와요”

서울 자양동 노룬산시장 신바람… 카드 수수료율 깎아줘 숨통 트여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는 생활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일반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이 뽑은 ‘베스트 10’ 가운데 대부분이 공휴일 주차허용과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이용, 이동전화요금 개선 등 생활경제 분야의 규제성과들이었다.

허재성 기자

주차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서울 광진구 노룬산골목시장은 인근 도로변에 공휴일 주정차가 허용되면서 주말에 더욱 붐비는 전통시장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산층·서민들이죠. 하지만 자가용을 몰고 멀리 강남에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노룬산골목시장 상인회장 지순재(58)씨의 말이다. 그는 “공휴일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 것은 특히 우리 시장과 같이 주차 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에 아주 유용하다”고 전했다.

서민들이야 한푼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전통시장을 찾겠지만, 돈 많은 이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북적북적 사람 냄새 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향수 때문일 것이다.

상인회장 “요즘 같은 불경기에 큰 도움”

50여 개 상점이 밀집한 노룬산골목시장은 오랜 기간 상권을 유지해 온 전통시장이다. 1955년 중구 양동 일대 철거민 약 2백 가구가 집단으로 이 지역에 이주하며 기틀을 잡은 노룬산골목시장은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육류 등 농수축산물뿐 아니라 된장, 고추장, 젓갈과 같은 각종 가공식품, 맛깔스런 반찬, 속옷에 이불, 화장품까지 생필품을 고루 갖춘 작지만 알찬 시장이다.

특히 이곳 시장 주변에는 30여 년 전부터 중국출신 동포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데다 최근에는 동남아인들까지 몰려들어 이국적인 식자재와 생필품을 파는 상점과 외국 화물운송 사무실, 환전소까지 장보기 이외에도 다문화 문물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전통시장 중에서도 최근에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주차장 설치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갖춘 곳이 늘고 있으나 노룬산골목시장은 주차장 용지로 사들일 땅이 마땅치 않아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다.

지씨는 “공휴일에 시장 인근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신양초교사거리 사이 왕복 2차선 도로 약 70미터 구간에 15~20대 주차가 가능해지면서 주말이면 시장이 더 활기차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지켜보니 이 제도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씨는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가 ‘얌체주차’예요. 시장상인회 모임이 있어 다른 시장 관계자들을 만나도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시장방문객이 이

정차·주차 노면표시 개선 형태

용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볼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장기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휴일이면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틈틈이 주차허용구역에 가서 장기주차 차량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상인들에게도 특정차량이 주차허용구역에 장기주차 하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고 한다.

20년 전 빚을 지고 노룬산골목시장에 들어와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는 그는 "그 시절엔 3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정도로 전통시장 경기가 좋았다"고 회상했다.

"주차장 시설 같은 시장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대형마트들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기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입니다. 대형마트 신규입점 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담당하는 분들이 현장을 찾아 직접 주변을 둘러보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하반기 개정 추진

중산층과 서민이 애용하는 '생활경제의 중심지'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노룬산골목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휴일 한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공인의 가게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로 연매출 9천6백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경우 1.6~1.8퍼센트(인하 이전 2.0~2.2퍼센트) ▲기타 중소가맹점의 경우 2.0~2.15퍼센트(인하 이전 3.3~3.6퍼센트)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정 기자

노룬산골목시장 상인회장 지순재씨. 우리 전통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제도에서는 전통시장 중 등록·인정시장에 한해서만 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고 기타시장(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타시장에 대해서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개선도 환영받아

자동차배출가스 검사 제도 개선(2009년 3월부터 시행)은 ▲배출가스 농도가 낮은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구조·장치의 안전도 검사와 환경부의 배출가스 검사를 '종합검사'로 통합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3백66만 대였으나 이후 매년 약 20퍼센트가 감소돼 연간 2백42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매매와 임대차, 토지와 건물관리, 금융·보험·연금, 제품구매·판매, 일반계약, 자격증·취업·고용, 발명·지적재산권 등 생활경제와 관련된 규제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의 '규제정보' 가운데 '규제활동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주정차 규제를 완화하도록 '이중 황색실선 노면표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로·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소 부근 등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는 '이중 황색실선'을 긋고, 탄력적으로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황색 단선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노룬산골목시장 가는 길 : 2호선 건대입구 전철역에서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약 7분 거리. **문의** 02-465-2103

노룬산골목시장 공휴일주차허용구역 :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신양초교사거리 사이 왕복 2차선 도로변 약 70미터 구간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www.rrc.go.kr

규제개혁으로 세운 '드라이브인 음식점'

"현장 둘러보고 정책으로 반영"… 국민 · 전문가와 맞장토론도

정부의 규제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답사로 불필요한 안전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이 꼽은 2010년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행정서비스 간소화는 일반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월 8일 오전, 소방방재청 방호과 이동원 소방경은 경기도 분당으로 차를 몰았다. 주유소 내에서 차를 탄 채 음식을 주문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이 새로 설치된 주유소를 둘러보기 위해서다. 원래 안전관리상, 주유소 내 음식점을 두는 것은 불법이었다. 휘발유와 같이 위험물이 산재한 주유소에 음식점을 설치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수요가 하나둘 생기자,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2010년 7월 이 법이 시행된 후로, 전국에 20여 개의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이 신설됐다.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서의 화재 예방 · 진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소방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소방경은 "위험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있다"며 "책상에 앉아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안전 · 위험물 관리 점검

이날 방문한 분당주유소 내에는 패스트푸드점이 '드라이브인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동원 소방경은 현장을 둘러보고 성수길 주유소 소장에게 애로사항을 물었다. 성 소장은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 주유소 경영이 어렵지만 드라이브인 음식점 설치로 고객유인 효과도 있고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도 있어서 그나마 낫다"며 근황을 털어놨다.

이곳 주유소 내 패스트푸드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400명 정도로 상당하다. 매장에 좌석도 있지만 이용객 중 3분의 1은

이경민 기자

차를 탄 채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주유소 내 '드라이브인' 패스트푸드점은 과거에는 안전관리 규제로 불가능한 서비스였다.

차에서 간단히 커피나 햄버거를 시키는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에 사는 윤준호(37)씨는 "차를 타고 자주 들른다"며 "주차를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커피를 살 수 있어 참 편리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 이동원 소방경은 "흡족하게 잘됐다"며 "규제완화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가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방방재청은 수요자 입장에서 안전규제에 접근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경민 기자

소방방재청은 매주 수요일을 '규제현장 답사의 날'로 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작년 한 해 각종 어려운 안전관련 규정을 합리화해 건의과제 수용률이 92.2퍼센트로 청(廳) 단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규제현장답사의 날'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유소 등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그 결과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관련 업체 총 87개소를 방문하고 46개의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국민 선정 '베스트 10'에 행정분야 4개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맞장토론회'도 도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국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개선을 토론하는 '맞장토론회'는 신선하다는 평과 함께 6건의 고질적인 규제문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동원 소방경도 '맞장토론회'에 참여해 '주유소 담 설비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이끌었다. 평소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생생한 정보가 바탕이 됐다. 이같이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이 소방경은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해왔다.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던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굵직한 규제 대못을 뽑아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정부 각 부처의 활발한 규제개혁은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반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서비스의 간소화다. 지난 2월 코리아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행정서비스 개선 분야 항목이 4개나 들어 있었다.

가장 환영을 받은 것은 1위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이다. 과거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떼기 위해 일일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했다.

노원구에 사는 문지연 주부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과거에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 간단한 서류 하나 떼기가 부담스러웠다"며 "지금은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신청서류는 3천여 종, 발급서류는 1천2백여 종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5천여 종의 민원업무 중 60퍼센트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되고 있다.

규제개혁 베스트 3위로 선정된 '공무원 시험제도 응시연령 폐지'도 사회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에서 근무하는 이만성 차장은 "2008년 11월 공무원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폐지 후 만학도가 많이 늘었다"며 "지난해 경기도에서 53세 되는 분이 행정직 9급에 합격하는 등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의 연령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연령폐지 수혜연령층의 합격 현황을 보면 7급 공채 합격자 중 36세 이상이 75명, 9급 공채 합격자 중 33세 이상이 2백55명으로 30~40대 연령층이 2년 사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 우체국에서 일하는 김영석(52) 주무관도 2009년 국가직 9급(우정본부) 공채에 합격한 늦깎이 공무원이다. 그는 "평소 공직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꿈을 꿔 오던 중 2009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한 결과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밝혔다.

늦깎이 공무원들은 사회생활을 통한 경륜을 바탕으로 탁월한 민원 해결 능력을 보이고 있어 현장의 평가도 좋다. 이처럼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했다. 또한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개방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G 글·이제남 기자

#1

직장인 김모씨(29)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다. 대학생 때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 땄고 직장인이 된 다음에는 짬이 안 나 차일피일 미뤄왔다. 김씨는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면허를 딸 계획이다.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먼저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이 75만8천원에서 29만7천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 시간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김씨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큰 부담없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S자·T자 코스 시험이 없어진다. 이 같은 운전면허시험의 간소화 방안으로 정부는 면허취득에 드는 불필요한 국민의 기회비용을 연간 6천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다듬어 '5퍼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5퍼센트 경제 위법령이 정비되면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법제처가 대대적인 '하위법령 특별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퍼센트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였다.

법제처가 밝힌 정비대상 하위법령은 총 4백86건이다. 정부가 선정한 개선과제 가운데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을 집계한 건수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 1백44건, 경제활성화 1백65건,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1백52건, 사회적 약자보호 및 기타 25건 등이다.

법제처, 시행령·시행규칙 486건 4월까지 마무리

현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수많은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법령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하게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연초에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를 조기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효과가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규제완화 등에 따라 1퍼센트 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는 만큼 여기에 잠재성장률 3~4퍼센트를 합치면 5퍼센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우선 각 부처에 대해 이들 하위법령을 2~3월 중 1, 2차 정비토록 하되 미진한 것은 자체 주도로 4월까지 일괄 정비한다.

먼저 경비업 내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에 교육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줄고 교육장 시설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경비업체의 신설이 용이해지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고 경비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된다. 아파트형 공장이란 한 건물에 여러 개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기존에는 투기요인이 적은데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예외가 인정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공장 취득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의 등록요건은 50실 이상의 객실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용이 1백70억원에 달했다. 이를 객실 요건 30실 이상으로 낮춰 초기 투자비용을 68억원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면 중소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고 '단

#2
서울의 S백화점은 최근 사내 보육시설 마련을 검토 중이다. 복잡했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엔 반드시 조리실·목욕실·화장실이 시설 내에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수도배관 공사를 다시 하는 곳도 있었다. 반드시 3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것도 임대료 비싼 곳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보육시설 층수가 기존 3층에서 5층 이하로 가능해지고 놀이터·조리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S백화점은 사내 보육시설을 좀 더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사진은 1월 12일 서울 LG CNS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센트 성장' 이끈다

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추진한다. 4월까지 수백 건의 하 기대된다.

독빌라형 콘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의 육질등급 기준도 단순화된다.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과 표시를 현행 17개에서 7개 방법으로 줄여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의 부담을 덜었다. 각 분야의 규제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다.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해 면허취득에 드는 국민의 기회비용을 연간 6천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현재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S자·T자 코스시험의 경우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S자·T자 코스시험을 없애는 대신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교육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 만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까다로웠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안전문제를 대비해 보육시설을 건물 내 1~3층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심의 사업장들은 임대료나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보육시설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하위법령 정비로, 일반 직장이나 보육 전용 건물에는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층의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지상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도 채광·환기·습도가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직장 내 어린이집 시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국민 불편 해소에도 초점

한편, 법제처는 하위법령 정비를 총괄 점검·관리할 '하위법령 특별정비대책반'을 신설했다. 4월 말까지 운영하며 하위법령 정비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망라한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국민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이 법령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한다.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도 구축한다. 정부입법 단계별로 법령안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댓글과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법률사항과 하위법령 사항으로 구분해 분기별로 점검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할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G

글·이제남 기자

따스한 도움에 서민 주름 펴졌다

복지규제 3년간 241개 개혁… 복지정책 '제도적 틀' 마련

이명박정부 3년간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은 '국민 건강 및 안전 도모'와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진행됐다. 지난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제개혁 이행 실적은 2008년 95개, 2009년 74개, 2010년 72개로 총 2백41개에 이른다. 이명박정부의 각종 규제개혁은 보건복지제도의 확대·발전을 가져왔고, 서민복지 정책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DB

정부는 서민 생계안정과 경제우기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3년간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을 진행해 왔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한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부모의 저학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학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42)씨는 몇 년 전 이혼으로 모자가정이 된 주부다. 중·고등 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기르는 박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다. 세 식구가 거주하는 작은 평수의 빌라 임대금에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와 기타 교육비,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박씨는 현재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만, 생활은 늘 빠듯하다. 하지만 박씨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복지 혜택 없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나 같은 모자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한줄기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키울 수가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결국은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명박정부 3년간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 인프라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 보험(2008년) 시행 ▲보육지원 확대(2009년) ▲장애인연금 시행(2010년 7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년 1월)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2011년 1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민과 보건의료 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조건을 완화해서 수급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약 2만3천명)의 부담을 경감(10퍼센트→5퍼센트)하여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서민과 취

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요건 완화 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현실화로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던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결혼한 아들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수급권을 확대했다.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월 근로시간이 60~8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약 5만6천명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새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를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아 연금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위기 가구의 긴급지원 확대 긴급지원 대상, 종류, 기준 등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가구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실적도 2008년 9월 2만4천 건, 2009년 9월 5만3천 건, 2009년 12월 8만3천5백 건으로 증가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확대 및 신고절차 등 개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당시 1백94만명이었던 수급자가 2008년 말에는 2백90만명으로, 2009년 말에는 3백63만명으로 증가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보육지원 확대 및 아이 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인 87만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육료 지급방식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 방식인 아이 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정부가 대신 결제)를 통해 지급함에 따라 부모가 보육료 지원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2010년 기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중증 장애인가구 소득 하위 56퍼센트까지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했고, 중증화상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에서 입원·외래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5퍼센트로 인하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도 종전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진료비 부담이 큰 MRI 보험급여 범위를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다.

보건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및 지원

외국인 환자 국내병원 유치·알선 허용 종전에는 내·외국인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지만, 2009년 5월부터 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08년 2만7천명 → 2010년 8만명).

뷰티산업 규제개선 2010년 뷰티서비스 종사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뷰티아카데미를 설치, 교육을 실시(673명)했다.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은 전국 규모의 온·오프라인 재교육 프로그램(뷰티아카데미)을 개발·운영하였고, 경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하는 등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종전의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제공되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장기요양 보험대상자가 14만명(2008년 7월, 노인인구의 2.9퍼센트)에서 31만6천명(2010년 12월, 노인인구의 5.8퍼센트)으로 늘어났다. 2010년 6월 현재 요양보호사는 16만명(급여 청구 기준), 교육기관 등 관련 종사자는 4만명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성장했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의약품 거래 및 약값 제도 투명화 2010년 5월 의료법·약사법을 개정하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도 형사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단지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가 국내면허 없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평가 개선 종전의 강제적인 평가제도에서 벗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신청을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을 결정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양·한방 협동진료체계 구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G

글·이상흔 기자

숙련 외국인근로자 고용불안 없앴다

울산선 대형화물 이동 막던 전기선 지중화·신호등도 회전식으로 바꿔

제 아무리 실력이 우수한 기업이라도 기업환경이 열악하면 성장하기 어렵다. 반대로 기업환경이 좋으면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부쩍 높아진다. 물류, 고용, 금융, 투자 등 기업경영의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기업 내외부의 수많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력 등 기업 내부 요인은 물론 교통 인프라, 자금조달, 고용제도, 세제 등 외부적인 요인도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업이 외부적 환경이 우수한 곳을 원하는 이유다.

세계 각국이 기업에 좀 더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다. 이런 면에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물류 기업인 D사의 울산 지사는 조선업 관련 하역과 수송을 전문으로 한다. 항구에서 하역한 조선 관련 제품과 장비를 실어 나른다. 문제는 육상의 도로 여건이었다. 도로 위에 설치된 신호등, 전기선, 통신업체의 케이블선이 운송의 장애물이 됐다.

지상에서 6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별 장애가 안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일반 차량의 운행엔 지장이 없다. 하지만 골칫거리였다. 조선 관련 화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통행에 장애가 됐다.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기선이나 신호등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곡예 운전을 해야 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안전운전을 하고 직원들이 교통정리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운송은 주로 밤에 이뤄집니다. 교통량이 많은 낮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죠. 밤에 하다 보니 전기선이나 케이블선이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화물에 걸려 전기선이 끊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대책이 필요했죠."

외국인근로자 매년 계약 불편도 해소

처음부터 전기선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다. 지상 6미터 위였으므로 어지간한 화물을 옮기는 데엔 애로가 없었다. 하지만 조선업이 대형화하면서 화물도 커졌고 높아 보였던 지상 6미터의 전기선에 화물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발전의 속도를 공단의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 셈이었다.

해결 방법은 간단했다. 전기선을 지하로 묻고 신호등을 옮기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필요했다. 기업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었다. D사는 울산시에 문의를 했고 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전력과 통신기업,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가

조선DB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열렸고 오래지 않아 합의점에 도달했다.

전선은 땅 밑에 묻었다. 신호등은 회전식으로 교체했다. 평소에는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가 차량이 통과할 때는 신호등이 회전해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게 하는 장치다. 바람이 많은 울산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튼튼한 유압식으로 설계했다.

회사 측은 "개선 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는 장애물을 고려해 수주를 할 때 높은 것은 포기할 때가 적잖았는데 이제 아무 제한 없이 수주에 나설 수 있게 돼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역시 기업환경을 좌우하는 중요 원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제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 인력 중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에 큰 환영을 받은 규제개혁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S사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의 덕을 톡톡히 봤다. 종전까지 외국인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었다. 국내에 3년간 체류할 수 있었으므로 모두 3번의 계약을 해야 했다.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이 제도에 불만이 있었다. 기업 입장에선 매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애로가 있었다. 외국인근로자는 계약 종료 후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체류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달간 출국한 후 돌아와야 했다. 이 역시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기업은 한 달간의 인력공백을 겪어야 했고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비용과 한 달간의 실업 및 그 후의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중소 건설기업 숨통 조이던 실적규제 폐지

S사에는 최근 3년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근로자들이 있었다. 과거였다면 이들을 출국시켜야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후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S사에 근무하게 됐다.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회사도, 출국비용과 향후 고용에 대한 불안을 모두 털어버린 근로자도 모두 만족한 규제개혁이었다는 평가다.

토목공사 업체인 C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을 받은 사례다. C사는 2007~2008년에 공사 수주를 거의 하지 못했다. 건설경기 악화 영향이었다. 문제는 2년간 공사수주 실적이 2억5천만원 미만이면 4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규제였다.

2년간 7천만원을 수주한 C사는 꼼짝없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C사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건설업체들의 영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조선DB

운송업체들의 애를 먹였던 낮은 전기선과 신호등이 매설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 사진은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대기업의 기업환경도 개선됐다. 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를 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출총제를 200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중핵회사는 같은 집단 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해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6백대 기업 및 30대 기업집단 투자동향'에 따르면 이 제도의 규제를 받던 31개 기업 중 설문에 응한 26개 기업이 2010년 투자액이 전년에 비해 19.4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답했다. 이는 전체 투자 증가율인 16.9퍼센트를 상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출총제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출총제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지만 규제 대상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출총제 폐지가 투자심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해 신규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7개 기관을 방문하고 32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행정절차를 2개 기관, 17개로 대폭 줄였다. 온라인 처리를 늘린 결과였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는 8단계 14일에서 4단계 7일로 대폭 줄었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절차도 개선했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4천1백70개이던 것이 2010년 4월에는 8천6백24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G 글·변형주 기자

“노는 땅 있는데도 공장 증설 규제했다니”

자연보전권역 등에 묶여 투자 발 동동… ‘증설 허용’ 개정안 상정

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투자가 늘수록 성장잠재력은 증가한다. 일자리도 확대된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돼야 한다. 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일러스트·유현호

J약품은 제약업계의 상위권 기업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5~7위 선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2006년 2천6백71억원이던 것이 2009년 3천6백94억원으로 3년 사이에 40퍼센트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은 4천3백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수익성도 뛰어나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4백12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0퍼센트에 육박한다.

걱정 없이 보이는 J약품에도 고민이 있다.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이다. J약품의 공장은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있다. 이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3천제곱미터로 제한돼 있다. 늘어나는 매출에 따라 생산 능력도 확충해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한 경영의 애로가 만만찮다.

J약품의 한 관계자는 “공장 인근 J약품 소유의 유휴지가 3만2천제곱미터(1만 평)가 넘는데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외주생산 등을 통해 부족한 생산력을 보충하고 있지만 비용적으로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회사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에 지을 수도 있지만 생산관리 측면에서 현 공장 옆이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획일적인 규제 풀어 투자 활성화

J약품은 현재의 공장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문의하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도 자문을 구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J약품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였다.

먼저 자연보전권역이라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J약품은 첨단 제약기업으로 현행 수질법상 폐수방출 기준보다 오염물을 적게 배출하고 있다. 건폐율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항변이었다. 현재 이 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다. 원래 40퍼센트이던 것을 2003년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축소했다. 조정 이전인 1986년에 입주한 J약품으로선 날벼락 같은 결정이었다. 토지가 고스란히 묶여버린 것이다. 매출은 느는데 2003년 이후엔 공장을 더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성장의 발목을 잡힌 셈이었다.

J약품의 주장에 동의한 정부는 규제개혁 방안을 찾았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안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현재 개정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회사 측은 “규제가 풀리면 약 1천2백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재 4천억원대인 매출을 2018년 1조원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덕특구, 예외규정 두니 투자 몰려

기업의 시설투자는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시설투자가 이뤄지면 생산량과 GDP, 고용, 소비 등 모든 지표가 호전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늘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당부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불만이 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 탓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장 설립과 증설할 때 애로가 많다.

T제약도 그런 불편을 겪어야 했다. T제약은 안과용 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2009년 국내 최초로 안과용 점안제를 유럽에 수출하는 등 기술력도 뛰어난 기업으로 평가된다. T제약은 사세 확장에 따라 공장 증설이 필요했지만 공장이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7~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까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인 용인시는 공장 증설을 원하는 T제약의 요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자치단체장이 환경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할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증설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T제약은 약 8백5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도 공장 증설에 애로가 있다. 2008년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이 개정되면서 생긴 일이다. 이에 따르면 특구 안의 도금 및 도장업종은 신규 입주할 수 없다. 문제는 기존

J약품의 용인 공장은 주변에 넓은 회사 소유 유휴지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규제 탓에 증설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조만간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 기업들이다. 증설을 하려고 해도 신규입주는 안 된다는 규정 탓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특구 안에 자동차부품기업인 J사가 그런 경우였다. 자동차업종의 경기 호전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새로운 관리규정에 막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대덕특구의 개정 관리계획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도금 및 도장업종이라도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례는 전국의 다른 특구에도 확산될 전망이어서 특구 내의 규제가 개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대구사이언스파크 1천5백억 비용 줄여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녹지 등 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공장 등의 증축과 증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연접개발제한도 완화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불허하는 연접개발제한의 예외규정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대규모 경기장은 대개 유지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시설수입이 부족한 데다 수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유희시설 등 각종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규제도 풀었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인허가에만 평균 2~4년을 투여해야 했다. 그 탓에 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용지를 제때에 공급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손질해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 투자자의 부담도 덜었다. 대구사이언스파크의 경우 1천50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G

글·변형주 기자

인증절차 확 줄이니 신사업 꿈 확 늘어

신제품 개발 위험부담 감소… 중복검정 폐지 확대해야

몸이 무거운 새는 날지 못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비용이나 시간 등의 부담이 많으면 시장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부담을 덜면 한 걸음을 가도 더 가기 마련이다. 중복적인 인증제도 등 기업의 부담이 됐던 규제가 풀리고 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S사장은 다가올 7월이 기다려진다. 그동안 애를 먹였던 규제가 개선돼 이 무렵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까지 구상하노라면 즐거운 미소가 번지는 요즘이다.

S사장의 사업모델은 선박에 비치될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력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선박용 화포와 화약이었다. 그렇다고 무기를 유통했던 것은 아니다. 선박이 조난 등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물품이었다. 연막탄과 신호탄 등이 그것이다.

S사장은 기존 제품 외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물색했다. 매출 확대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고객인 선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에는 다양한 비상용 비품이 비치된다. 비상용 화포와 화약 외에도 비상용 식량과 식수, 의료용품도 갖추어야 한다. 선주들은 이 비품들을 한 업체에서 납품받기를 원했다. 여러 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다.

선주들의 요구에 S사장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비상용 식량과 식수, 의료용품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중국 기업의 제품이 들어왔다. 값이 싸면서도 질이 좋았다. 중국 내수 시장의 7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어서 신뢰도 갔다. S사장의 마음에 '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섰다. 당장 수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하지만 S사장의 구상은 걸림돌을 만났다. 식량과 식수 수입에 관한 규제 탓이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구난식량과 구난식수는 2번의 검정을 받도록 돼 있었다. 형식승인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그것이었다.

조선DB

LED 기업들은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형식승인은 국가나 연구소, 감정기관에서 제품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구난식수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문제는 수입 제품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구난식품 역시 형식승인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신고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서 제도적 애로 해결

S사장은 기존 법령은 불필요한 2중 검정을 규정해 사업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다. 7개월 동안 1천만원이 소요되는 형식승인 외에 별도의 검정을 받으려면 시간은 물론이려니와 비용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섰다.

S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에 문의를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S사장의 주장에 동의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 결과 2중 검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드디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S사장의 꿈은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국내 선박에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산 제품을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과도한 절차 탓에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이 져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비용과 타이밍은 경영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비용은 수익성과 직결되고 타이밍은 사업성을 좌우한다. 정부의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은 이를 감안한 결정이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인 P사도 인허가 개선의 덕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품을 개발한 P사의 눈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갖가지 인증을 획득해야

조선DB

지식경제부는 국가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 제품에 2개 이상의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결과는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 출범 기념행사의 모습.

하는 과제가 있었던 것이다. 먼저 법정의무인증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인증과 KS 인증도 얻어야 했다.

취득해야 할 인증이 많으니 당연히 취득 기간도 길어졌다. 최소 6개월이 소요됐다.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 6개월이나 기다리는 것은 기업으로선 큰 위험부담이다. 이에 P사는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중복적인 검사를 줄이고 검사 창구도 일원화해 인증기간을 축소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P사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국내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인증 취득 비용·기간도 크게 줄어들 듯

지식경제부는 국가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 제품에 2개 이상의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33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결과는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KC마크도 전 부처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 취득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취득 비용은 기업당 3천8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66퍼센트 줄고 소요시간은 5.5개월에서 4개월로 1.5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LED 조명기기의 경우 인증 수수료도 인하한다. LED KS 인증 품목은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 등 8품목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수수료를 20퍼센트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환경 규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바이오가스 발전업체인 E사는 과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준 탓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화석에너지 발전시설에 비해 온실가스 방출량이 현저히 적은 데도 화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에 달했다.

정부는 획일적인 환경 기준을 기업에 따라 차별화하기로 했다. 환경개선 정도가 큰 녹색에너지 기업엔 배출허용기준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녹색에너지 기업의 비용부담도 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행정형벌을 합리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단순한 행정법규를 위반해도 '전과자'로 기록됐다. 그 결과 취업과 해외여행,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았다. 법무부는 행정절차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일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기소자는 2009년 약 73만명에서 2010년 24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행정형법 합리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법인의 벌금 부담과 절차 단축에 따른 효과 등으로 연간 1천6백10억원이 절감됐다. G

글·변형주 기자

일러스트·이우정

한달 만에 특허 끝… 글로벌 경쟁 '가속도'

"의료관광 더 활성화시키려면 TV에 의료광고 허용 등 규제 더 풀어야"

기업들의 미래성장 대비 분야의 규제개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 환자 유치,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제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

"열이 잘 방출되지 않아 유지 및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 방열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입니다."

LED조명 제조업체인 화우테크놀로지(대표 유영호) 영업기획팀의 마대환씨는 "지난 1월 10일 '표면방열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LED조명 광출력 안정화 기술'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씨는 "이번 인증획득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 우대를 비롯해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특허우선심사 및 국제출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우테크놀로지는 LED조명의 코일을 개량하고 알루미늄 대신 플라스틱을 조명 외관에 사용하는 선형방열기술과 플라스틱 방열기술 개발작업에 주력해 왔다.

'녹색기술 인증'은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린IT 등 총 10개 분야에서 선정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처럼 정부는 미래성장을 대비해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녹색기술의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제도를 특허청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정보를 기재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

면 되며,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다. 일반심사가 18개월, 우선심사가 3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며 이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로 해외 환자 유치

글로벌헬스케어협회 박인출 회장은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 시 수수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종합병원 병실의 5% 이내만 외국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를 정부가 과감하게 개혁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박인출 글로벌헬스케어협회 회장.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글로벌헬스케어협회는 개원의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1천여개 외국인환자 진료 의료기관, 유치업체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글로벌헬스케어협회는 그동안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 해외 환자 유치 타깃 국가의 민간단체들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거점병원 구축 및 환자유치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20여 개국에 협회 지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인출 회장의 말처럼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됐고,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해외환자 수는 급증했다. 2007년 7천9백1명, 2008년 2만7천4백80명에서 2009년 6만2백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0년은 8만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자료 국무총리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투자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하고 TV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수출 공적을 인정받아 의료계에서는 최초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 정성일 예성그룹 대표원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비자발급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야 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사업 빗장 풀어 외주제작 시장 등 들썩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인 포유미디어의 이선영 대표는 "종합편성 케이블방송이 허용되면서 프로그램 제작 협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간접광고, PPL 등의 규제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영 포유미디어 대표.

또 외주제작사인 에이치비전의 윤미향 대표는 "종편의 등장으로 방송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전 방송시장이 칸막이식 규제로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이 제한됐으며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같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다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해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시장에 관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4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앞두고 외주제작 시장이 들썩이는 등 미디어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은 부족한 자체제작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의 50~60퍼센트를 외주제작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4천6백억원대의 외주제작 시장 규모가 종편 개국을 기점으로 1조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 제작 콘텐츠 가격도 수요·공급 그래프를 따라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주제작사가 부가수익권을 확보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외주제작사의 지상파 3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이 이뤄질 경우 비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수요가 증가, 지상파방송 3사의 영향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

글·서일호 기자

이경민 기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온라인 토론방에 모여 정책을 제안하거나 직접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생활 속 불편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은, 남복희, 리홍리 주부.

"국민의… 엄마의… 여성의 눈높이로"

사회안전 · 교육 · 복지 등…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 이뤄지길"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규제개혁에 나섰다. 2009년 결성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교육, 교통, 세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직접 만나 국민이 진정 원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들어 봤다.

3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가 열렸다. 주부모니터단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껴 온 불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담당 부처별로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한 해의 경우, 접수된 2만4천여 건의 제안 가운데 2백57건이 채택돼 실행 중이다.

2009년 1기 3천41명을 시작으로, 참여 인원이 2010년 2기 1만2백58명으로 대폭 늘었을 정도로 주부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3기에는 1만36명의 주부가 참여해 2013년 3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주부모니터단을 직접 만났다. 남복희, 김승은, 리홍리 세 명의 주부다. 정책변화를 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주부들의 입을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가감 없는 의견을 들어 봤다.

어떤 계기로 주부모니터단에 지원하게 됐나요?

김승은 (이하 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불평만 하기보다는 아이디어로 정책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죠.

남복희 (이하 남)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주부모니터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을 하면서 좋은 것은 주부들이 제안한 정책이 바로바로 반영되어 생활 속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네요.

리홍리 (이하 리) 중국인인 저는 8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3년 12월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2009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주부모니터단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1기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왔네요.

세 사람은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등 각각 사는 구는 다르지만 종종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3기 서울시 대표를 맡은 남복희 주부와 서울시 부대표를 맡은 김승은 주부,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대표하는 리홍리 주부까지…. 다양한 주부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생활정책 아이디어가 궁금하다.

평소 어떤 분야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나요?

김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로서 사회안전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남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복지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리 저는 꼭 주부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복희 주부는 지난해 2기 노원구 주부모니터단 대표를 맡아, 우수한 모니터 활동을 이끌어 2010년도 주부모니터단 활동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리홍리 주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빈자리 알림 서비스' 정책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제안한 정책 중 실행이 된 사례가 있나요?

리 지난해 어린이집을 신청하려는데, 원하는 곳은 자리가 없더군요. 어린이집 대기자 신청을 하는데 근처 어린이집마다 일일이 신청해야 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 주변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나면 알려주는 '어린이집 빈자리 알림 서비스'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을 수용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 요즘 다문화가정이 이슈다 보니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중복이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금처럼 여러 부처가 관리하기보다는 한 부처로 통합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시는지?

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정말 유용합니다. 당장 내일까지 학교에 가족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려고 할 때면 난처했는데, 집에서 간단히 출력만 하면 되니까 참 편리하죠. 이동전화 요금은 초단위 과금으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요금이 줄어든 것은 별로 못 느끼겠네요.
리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용 불가능한 벌금을 받기보다, 3백만원 미만의 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벌금납부를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으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남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개선은 상당히 많이 이뤄져 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불법 우회전을 방지하는 '봉'이 어설프게 박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봉을 어설프게 박아 놓으면 불법 우회전이 성행하니, 봉을 더 심어서 제대로 규제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불법 우회전이 없어져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풀 때는 풀어야겠지만 규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예 못하게 하면 불법 우회전을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정책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부모니터들로서 앞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규제개혁 관련 정책이 있으신가요?

리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한 번 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두번째부터는 쉽게 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족방문초청서 등 제출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딸 집 오려고 매번 그런 절차를 겪으시는 게 너무 힘드네요.
김 요즘 전세대란으로 난리인데, 다세대·다가구 건축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금보다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임대용 주택이 늘어,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이란?

김 국민들 입장에 서서 불편을 주지 않는 규제개혁으로, 진정한 서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 무조건적인 규제개혁보다는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정부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불편한 것은 오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

진행·이제남 기자

이경민 기자

주부모니터단은 삼삼오오로 모여,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한다.

온라인 민원 확대·産團 인허가 개선 '가장 잘한 규제개혁'

"체감 규제 개혁"… '전봇대' 더 뽑는다

국무총리실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일반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국무총리실이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 두 가지가 각각 일반국민과 기업체가 뽑은 '베스트 10' 중 1위에 올랐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일반국민을 대표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1천여 명이 참여했고, 기업체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그리고 전국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등 6백여 개사가 참여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정부정책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부모니터들로, 제2기(2010년 2월 26일~2011년 2월 25일) 모니터단이 참여했다.

'베스트 10-10'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중 일반국민 및 기업대상 대표과제들에 대한 절대평가(10점 만점)를 통해 선정됐다.

일반국민의 설문 분야와 과제는 ▲생활환경 개선(7개) ▲친서민대책(7개) ▲행정서비스 개선(6개) ▲중소상공인·농림·어업(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였다. 기업 대상 설문 분야와 과제는 ▲투자활성화(8개) ▲기업환경 개선(7개) ▲기업부담 경감(5개) ▲미래성장 대비(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였다.

일반국민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규제개혁으로 꼽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의 경우 이사와 사망 교육 분야까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발급서류를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신청서류가 2009년 말 1천8백20종에서 2010년 12월 3천20종으로 늘었다.

일반국민·기업들 절대평가 통해 선정

또 온라인 발급 서류는 2009년 말 5백 종에서 2010년 12월 1천2백8종으로 증가해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불편 해소는 '당연한 덤'이고 말이다.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도 호응도가 높은 규제개선이었다. 공원과 종교시설은 2009년 7월부터, 전통시장은 2010년 10월부터 주변도로에 대해 공휴일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공원과 종교시설 이용시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었음은 물론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원가절감 효과를 거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감도.

조선DB
올해부터 인감증명을 대신해 시범 도입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했고, 다양한 민간근무 경력자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규제개혁이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투자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과제가 선호되고 있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과제들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투자활성화 과제의 하나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이 종합 1위에 오른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 분야 과제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2위)'은 대기업 선호도가 11위였던 반면 중소기업 선호도가 1위여서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불편해소는 물론 비용절감 효과까지

미래성장 대비 과제인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은 대기업 선호도 2위, 중소기업 선호도 7위로 종합순위 3위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과제였다. 대기업 선호도 1위였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는 중소기업 선호도(21위)가 낮아 종합순위 14위로 '베스트 10'에 진입하지 못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인허가 비용 등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1천5백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총 사업비 1조8천8백억원이 투입되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로, 부가가치 유발 10조원, 고용유발 14만명 등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연합

규제개혁 베스트 3위에 뽑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사진은 해양경찰 채용 체력검사.

일반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

순위	과제명	분야
1위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행정서비스 개선
2위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생활환경 개선
3위	공무원 시험제도 응시연령	폐지행정서비스 개선
4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소상공인·농림·어업
5위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	행정서비스 개선
6위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행정서비스 개선
7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생활환경 개선
8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친서민대책
9위	교통신호체계 등 교통 관련 제도개선	생활환경 개선
10위	이동전화 요금제도 개선	생활환경 개선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

순위	과제명	분야
1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투자활성화
2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기업환경 개선
3위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규제 개선	미래성장 대비
4위	행정형벌 합리화	기업부담 경감
5위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	미래성장 대비
6위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미래성장 대비
7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기업부담 경감
8위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투자활성화
9위	영업자 교육축소 등 법정 교육제도 개선	기업부담 경감
10위	창업절차 등 기업환경 개선	기업환경 개선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어떠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을 때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로 그 성과를 체감하는지 알게 되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국민들에게 이러한 체감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개혁과제 89.9퍼센트 입법절차 완료

이명박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성 핵심규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왔다. 특히 경기회복의 온기가 일반서민·취약계층 등으로 확산되도록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천6백98개 규제개혁과제 중 3천3백26건에 대해 입법절차를 완료(89.9퍼센트)했다.

최병록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개선이 미흡했던 식·의약, 교육, 금융, 국토이용·개발 등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 산업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사회적 합의 등을 조속히 도출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G

글·박경아 기자

규제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규제다. 일종의 '필요악'인 셈이다. 그러한 규제로 인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규제는 존재가치가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더 불친절한 세상이 됐을 때 그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불친절한 규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고, 보다 친절한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규제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국민들은 규제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규제는 필요악이다.

규제에도 품질이 있다. 규제가 없는 세상보다 규제가 있는 세상이 더 나을 때에만 규제의 존재가치는 빛이 난다. 규제를 잘 만들고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규제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높은 품질의 규제가 요구된다.

둘째, 규제의 공급자는 정부이고 수요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자칫 정책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규제의 품질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해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대략 평균 1천 건 정도다. 2008~2010년 3년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2천9백92건에 이른다. 그중 7백28건에 달하는 중요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4퍼센트에 해당하는 3백93건의 규제안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다.

규제는 있는 것이 더 나을 때만 존재가치

한번 만들어진 규제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신설할 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의 품질관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선 피규제자들이 지적하는 '불량규제론'을 귀담아듣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른바 '나쁜 규제'로 분류될 만한 것을 일단 걸러내 보자.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하는 불량규제는 대략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비현실적인 규제 ▲낮은 품질의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역차별적인 규제 ▲공공의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규제 등이 그것이다.

규제의 역기능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일도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긴요하다.

비현실적인 규제는 아닌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아닌지, 국민생활에 불편만 주는 규제는 아닌지, 정책 목표나 성과에만 집착하여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아닌지,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장과 기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는 아닌지 등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개혁 쉽지 않아 규제 신설 때 제대로 만들어야

규제의 품질을 가릴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명품 규제'를 구별해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피규제자들이 공감하는 간명한 원칙이 있는가,

긴 안목에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부지런함을 입증할 수 있는가, 시장친화적이고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에 충실한가, 기술과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인가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명품 규제'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왕 품질관리에 나선 김에 좀 더 욕심을 내서 규제를 '명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부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돋보이게 하는 규제라면 '명품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섬김의 정부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 법 제도상의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규제는 명품 규제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명품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명품 규제를 위한 십계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

조선DB

3월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회동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오른쪽부터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이기성 무역협회 전무.

일종의 '필요악'인 규제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더 불친절한 세상을 만든다면 그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규제의 역기능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일도 품질관리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아닌 국민을 돋보이게 하는 규제가 '명품 규제'이다. 이는 '섬김의 정부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제1계명이다. 불량규제는 대부분 '원칙 따로 실천 따로'에서 비롯된다.

'법률만능주의와 행정편의주의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 한다'는 게 제2계명이다. 민간 위에 군림하는 정부와 행정 우위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를 '명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제3계명이다. 역동적인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기업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공익(公益)의 필요성을 빌미로 과다 규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4계명이다. 피규제자의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은 보지 못한 채, 규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규제의 주기적인 정밀점검(overhaul)이 필요하다'는 게 제5계명이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규제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규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나 근거 없이는 규제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제6계명이다. 하위 법령의 규정 가운데 모법의 규정이 아닌 타법을 원용하거나 에둘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래산업과 미래사회에 걸맞은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게 제7계명이다. 융합기술의 발달로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규제의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8계명이다. 규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일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가 없이는 명품 규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제9계명이다.

'국민보다는 정부가 부지런한 규제가 명품'이라는 게 제10계명이다. 이는 곧 정부가 규제를 통한 공권력 행사를 쉽게 동원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시장의 힘을 신뢰하고 시장경제의 창달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발휘할 의지가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면 '명품 규제'라 할 수 있다. G

대통령이 칭찬한 '농협법 개정안' 실무주역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과장

"개혁은 오케스트라… 화음 맞아야 성공"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4년 이후 17년간 끌어오던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 및 판매)을 분리하자는 논쟁(신경분리 논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농협은 대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실무 책임자로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남태헌 과장을 만났다.

김승완 기자

농협법 개정 작업의 실무를 맡은 남태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으로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의 3개의 법인(1중앙회 2지주)으로 분리된다. 중앙회는 고유업무인 조합과 농업인의 교육 및 지원업무(지도사업)를 담당하고,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등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은행과 보험 등의 업무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맡게 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책임성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농협중앙회와 이견이 커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주 실시하다시피한 실무협의와 간부급회의를 통해 상호 신뢰감이 커졌고, 더구나 정부가 자본금과 조세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앙회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전폭적인 협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농민단체와 대화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농민단체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농협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금융정책과의 농협법 담당직원이 7명인데 거의 2년 가까이 농협법 개정 일에 매달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전체에서도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은 모두 각 지역을 하나씩 맡아서 농협조합장들을 설득했습니다.

국장님들은 더 자주 지방을 다니시며 대화와 설득작업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는 1천1백71개 지역 조합장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 농업금융정책과 남태헌 과장의 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외에도 많은 부서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농협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부서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에서도 많이 도와주었고, 특히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님 이하 예산담당 차관, 세제 실장, 소관 업무 과장님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정책기획관과 특임장관실의 역할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김효석, 김영록, 강봉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개정안 통과

가 힘들었을 겁니다."

지난 3월 4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연 도중에 남 과장님을 직접 언급하며 격려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래전부터 농협법 개정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개정법이 통과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연하셨는데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고가도로 제거 과정의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던 중에 갑자기 대통령께서 농협법 개정안의 실무 부서였던 농업금융정책과를 언급하셨고, 강연 현장에 참석해 있던 저(우리 부서 직원들을 포함)를 격려하시면서 앞으로도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 농업환경은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무렵 대외 개방에 대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농가도 늘어났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농업 생산물이 늘어나자 당장 농산물의 판로 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이 문제를 농협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농협이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 농협 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신용업무와 경제업무를 분리하자는 소위 신경(信經)분리 논쟁이 나온 것입니다."

신경분리 논쟁이 17년 동안 매듭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그만큼 컸던 것이죠.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농협법 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농협, 농민단체, 정부, 학계,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통합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 입장에서는 신용사업부문에서 수익을 내면서 지역 조합원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있었고, 농협중앙회가 농업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남 과장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의 두 번째 걸림돌은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따른 자본금 확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사업분리에 따른 부족 자본금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해결됐다고 한다. 정부는 부족 자본금 외에도 조세와 보험부문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지요.

"별도 회사로 분리된 경제사업부문이 농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전담하면 생산자인 농민들은 생산에만 주력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과 판매가 전문화되면 농민들은 농축산물을 제 값으로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은 좀 더 양질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신용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면 그 혜택이 지역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농협자본은 사실상 우리의 토종 자본입니다. 저는 농협금융지주의 설립으로 농업부문에서 특화된 토종은행이 성장할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요.

"농협법 개정 취지를 농업계에 계속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큰 그릇(법)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작업(하위법령, 시행령, 고시, 정관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세제지원과 부족자본금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농협법 개정안 작업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개혁과제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개혁이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 하에 각 단원이 서로 돕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주의 지휘자는 바로 '농업에 대한 공감', 또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아무리 치열하고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더라도 서로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호 협력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 작업은 여러 관계부처, 언론, 여야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G

글 · 이상흔 기자

'인폴루션ZERO' 운동하는 주부 박유현씨

"두살 아기도 스마트폰 쥐는 세상 음란·폭력물 엄마가 뿌리뽑아야죠"

주부 박유현씨는 '인폴루션ZERO'라는 NGO를 만들었다. 인폴루션(Infollution)이란 인포메이션(Information·정보)과 폴루션(Pollution·공해)을 합성한 신조어다. 인터넷·방송에 넘쳐나는 음란·폭력물과 개인정보 유출을 없애가자는 뜻에서 이름을 '인폴루션ZERO'로 붙였다고 한다.

조선DB

박유현씨는 "인터넷·방송에 넘쳐나는 음란·폭력물과 개인정보 유출을 없애기 위해 '인폴루션ZERO'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첫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보낼 때인 2007년이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인터넷에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더군요. 널린 게 음란·폭력물이었죠. 저 같은 성인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갓 태어난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동'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유현(36)씨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를 그만두고 최근 '인폴루션ZERO'라는 NGO를 만들었다. 인폴루션(Infollution)이란 인포메이션(Information·정보)과 폴루션(Pollution·공해)을 합성한 신조어다. 인터넷·방송에 넘쳐나는 음란·폭력물과 개인정보 유출을 없애가자는 뜻에서 이름을 '인폴루션ZERO'로 했다.

박씨는 미국서 살던 2008년 남편과 '인폴루션ZERO' 운동을 시작했고, 2010년 6월 안세재단 산하에 본부를 마련했다. 직원 5명을 두고 서울 명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는 작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을 오가며 컨설턴트로 일했다.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미디어산업을 담당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컨설턴트 그만두고 NGO설립

"서울에 와서 '인폴루션'에 대해 업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모든 이슈가 정치·경제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갈등이라든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의 미래 등과 같이 말이죠. 정보공해로 인해 아이들이 입을 피해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박 대표는 게임업체·케이블채널·포털사이트만 비난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산업이 '돈' 되는 선정적 콘텐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그는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에게 '인폴루션ZERO에 참여해 달라'는 장문의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윈도 프로그램에 '리사이클빈'(Recycle bin·휴지통)이 있죠. '나쁜 정보란 없다, 모든 정보는 재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빌 게이츠 회장의 생각이 반영된 겁니다. 전 빌 게이츠 회장에게 휴지통 안에 나쁜 정보를 분리해 버리는 기능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박 대표는 "인폴루션ZERO(약칭 iZ)는 가정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나서서 정보 공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보를 '공해'로 분류하는 것인지 묻자 그는 "자신의 아이가 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상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은 막아 놓아도 어떻게든 찾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인폴루션'의 개념을 알리고 그들 서로가 입소문을 내야 해요.

지금까지 유해정보 관련 지엽적인 캠페인은 많았지만, 아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박 대표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접하는 나이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소아과 의사들이 부모에게 '아기의 정상적 뇌 발달과 창의력 계발을 위해 가급적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화면(Screen)도 접하게 하지 말라'고 권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섯 살 된 자신의 첫째 아이에게 인터넷은 물론 TV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두 살 된 아이를 컴퓨터 앞에 앉히고, 스마트폰도 쥐여줍니다. 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그 재미에 중독되면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한글·영어 공부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킨다지만 그게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편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 대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자화상·미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치미술가 강익중씨가 이 그림을 모아 작품을 만드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하버드대 등과 '인폴루션의 사회적 비용 연구' 진행 계획

4월에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 '디지털세계의 정보공해, 인폴루션'을 열고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등과 '인폴루션의 사회적 비용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4일에는 정식 홈페이지(www.infollutionzero.or.kr)도 열었다.

박유현 대표는 "아이를 낳고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전에는 자신의 성공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아이를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돈 잘 버는 엄마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을 던져 세상을 바꾸는 엄마로 남을 것이냐의 선택 앞에서 결정은 쉬웠어요. 행여 나중에 아무도 절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일을 시작한 데 대해 후회나 미련은 없습니다." G

글·김남인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일러스트·남동윤

"인폴루션ZERO는 부모가 나서서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해정보 관련 캠페인은 많았지만,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음란물 차단 방법

인터넷 음란물을 차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 안전망 '그린 i-net'

그린 i-net(www.greeninet.or.kr)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축한 사이버상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이다. 그린i-net 사이트(www.greeninet.or.kr)에 들어가 유해정보차단/인터넷시간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자녀 보호 프로그램 '엑스키퍼'

유해사이트, 유해동영상 등의 인터넷 음란물을 차단함과 동시에 컴퓨터 사용시간관리로 올바른 컴퓨터 사용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종합관리 프로그램이다. 엑스키퍼 사이트(www.xkeeper.com)에 들어가 회원 가입 후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7일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고운우리급식도시락사업단을 방문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 현장을 찾아서 | **노인 일자리**

"힘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 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현장을 방문해 서민생활을 체감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장 방문을 소개한다.

"힘들지만 나이 들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지난 3월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고운우리 급식도시락사업단'에서는 6명의 노인이 급식 도시락의 반찬을 만드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인근 6곳의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납품할 오후 3시가 임박하자 앞치마를 두른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더욱 분주해졌다.

이날 아이들에게 배달될 도시락 메뉴는 잡곡밥과 쇠고기 불고기, 상추, 고추장 감자볶음, 김치, 된장국. 쇠고기 불고기는 신선도 유지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조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양파, 당근 등 각종 야채가 어우러져 푸짐한 도시락 반찬이 만들

어졌다. 음식들은 국산재료로 만들어졌고,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곳의 매니저인 박정화 씨(65·여)는 "우리 손자·손녀 같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조미료를 넣을 순 없잖아요"라며 "아이들은 맛있어서 좋아하고 저희는 돈을 벌 수 있어 좋아요"라고 말했다.

박 어르신은 지난 20년 동안 반찬가게를 운영했던 노하우를 이곳에서 2년째 펼치고 있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4시간씩 3교대로 주 5일 근무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한 달 약 40만원에 불과하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권차홍 씨(73·여)는 "집에 있으면 아프기만 한데 이렇게 나이 들어 일을 할 수 있어 삶에 생기가 돈다"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즐거워했다. 아울러 "적당한 노동은 운동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 4시간씩 급식도시락 만드느라 구슬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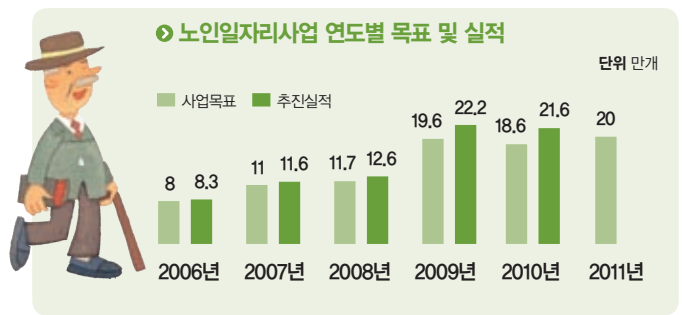
고운우리급식도시락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 고운우리반찬가게로 개점했다. 당시 월 매출이 2백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역아동센터 급식 납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면서 현재 월 매출은 1천4백만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고양시로부터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15평에 불과한 협소한 내부 공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 할 계획이다.

지금도 공간이 부족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한국철도공사 관광열차 도시락사업 참여가 성사되면 하루 5백~6백 개에 이르는 도시락을 조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리시설도 확충하고 1백여 명의 노인인력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고운우리급식도시락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신우철 복지사업부장은 "한국철도공사에 도시락이 제공된다면 올해는 연매출 8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 70퍼센트, 장애인 20퍼센트, 차상위 경력단절여성 10퍼센트로 구성해 조리와 포장, 마케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고운우리급식도시락사업단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부족과 짧은 근로기간 등의 애로사항을 진 장관에게 건의했다.

진 장관은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은 재정 의존성과 낮은 보수 등의 한계가 있다"며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민간부문과 협력해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공영역에서 재정지원에 의존하던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민간과의 협력 및 공동투자를 통해 고용시장 내에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민간영역에서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니어 인턴십' 도입,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직능·직장 시니어클럽' 지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에게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노인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턴 임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기업은 단기근로자 또는 연수생 형태로 노인을 채용할 경우 월 3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인턴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 통해 4천 개 일자리 창출

또한 복지부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은 노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령자 적합형 직종에서 직원의 대부분을 노인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베이비시터 전문 파견기업, 도시락제작 사업단 등 10개 내외의 기업에 설립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직능·직장시니어클럽'은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에게 경륜 나눔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다. 복지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최대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초기 일자리 창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기업, 공기업, 직능단체, 퇴직자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퇴 전 직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자원봉사 및 일자리 형태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4월 1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접수한다. G

글과 사진·공감코리아 (www.korea.kr)

작년 12월 신촌역 주변에서 진행한 '기부샘샘' 캠페인에는 '기부천사' 가수 션이 V원정대의 활약에 동참했다.

지리산에서 연평도까지… '사람 손길' 필요한 곳으로

'1인 1봉사' 대학생 V원정대를 아시나요

여기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까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 세계 모든 대학생의 삶 속에 자원봉사가 일상의 기쁨과 놀이가 되게 하겠다'는 각오로 뭉친 이들, 바로 한국대학생자원봉사원정대V(이하 'V원정대')가 그 주인공이다.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이 넘쳐 나는 밸런타인데이. 하지만 V원정대에게 이날은 밸런타인데이가 아닌 볼런티어데이(Volunteer Day)였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거리에서 그들은 수제 초콜릿을 신촌, 명동 등지에서 직접 판매했다.

그리고 당일 판매 수익금을 북한 어린이를 돕는 '푸른나무' 재단에 기부했다. MBC 〈7일간의 기적〉팀과 함께한 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음 따뜻해지는 초콜릿. 그들은 이 초콜릿으로 2월 14일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나친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상술'로 전락한 밸런타인데이 문화를 착하고 아름다운 소비문화로 전환했다는 의미에서 이를 '착한 초콜릿'이라고 부른다.

'착한 초콜릿' 바람을 몰고 온 V원정대는 지난 2009년 여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대학생 봉사단체다. 한국대학생리더십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작된 V원정대는 현재 운영진만 3백60여 명, 전국 2백6개 대학교 5백여 명의 대학생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5대 정신'이 만들어 낸 기적의 봉사활동

V원정대는 '자함편차, 도개절포' 등 독특한 신조어를 입에 달고 산다. '5대 정신'을 이르는 말이다. 1대, 2대, 3대 정신을 줄여 '자함편차'라 부르고 4대 정신을 줄여 '도개절포', 그리고 마지막 5대 정신을 줄여 '사사또사'라고 부른다.

1. **자원 합니다!** :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비량으로 봉사한다.
2. **함께 합니다!** :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책임진다.
3. **편견과 차별을 넘습니다!** : 봉사주체, 봉사대상 모두에게 편견 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미 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봉사를 한다.
4. **도전하고 개척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5.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 봉사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난 3·1절에 가수 김장훈과 함께한 독도 페스티벌. 지리산, 연평도, 독도까지 V원정대의 봉사는 '전국구'를 넘어 해외로까지 이어진다.

V원정대는 순수하게 대학생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단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직접 기획해서 봉사를 진행하고 또 책임지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진이 직접 마련한 '1인 1기획 봉사'는 실천 가능하면서도 의미 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봉사활동이다.

KBS 주말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 방영 후, 급격히 쓰레기가 늘었다는 지리산둘레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산둘레길 환경정화 운동' 등을 기획해 일반 대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것이 좋은 예다. 이외에도 '보육원에 꿈'과 '사랑의 페인트칠' 등의 다양한 1인 1기획 봉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풍성한 프로그램에 걸맞게 대학생들의 참여도 높다.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09년 여름에는 전국 32개 대학교에서 2백50여 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2010년 여름에는 해외 포함 1백6개 대학교에서 5백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2010년 겨울부터 시작한 '기적의 73일–미라클 메이커(Miracle Maker)'에는 전국 2백50여 개 대학교에서 4천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불과 1년 만에 이루어 낸 변화였다.

전국 2백여 대학교 5백여 학생이 참여

실제로 이들이 지난 겨울에 실시했던 주요 봉사 프로그램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작년 12월 17일부터 73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신촌역 주변에서 진행한 '기부샘샘' 캠페인이 그중 으뜸이다. 이른바 '메마른 기부의 샘을 다시 샘솟게 하는' 기부샘샘 캠페인은 기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V원정대는 빨간 사과 모양의 완장을 차고 영하 15도의 추위와 싸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빨간 사과모양의 종이를 내밀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 혹은 자신과의 기부 약속을 종이에 적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ARS 기부전화를 하겠다!', '월드비전에 정기적인 기부를 하겠다!' 등 사과종이에 적힌 잠정적인 기부금만 대략 1억5천만원! 당장 기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기부문화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V원정대의 봉사활동은 이어졌다. 찜질방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게 배식봉사를 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12월 19일 주민들이 김포의 임대아파트로 이주를 하던 날 아침, 배식봉사와 함께 후원받은 떡도 돌리고 직접 전도 부쳤다. '공부방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연평도 주민의 말을 듣고 초등학생 80명,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공부방 운영을 실시했다.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봉사로 전란과도 같았던 연평도에 훈훈한 기운이 맴돌았다. V원정대의 김명석(연세대·26) 단장은 "연평도 봉사활동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V원정대는 말한다. "봉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봉사들은 "어렵지도, 투철한 봉사의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단지 대학생이기에 기획하고 진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매력을 느끼고 뛰어들면 된다"고 전한다. '봉사라는 것은 업적을 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닌,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보상심리가 아닌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V원정대는 "대학생의 문화를, 일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봉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학생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V원정대 바람대로 대학생의 문화에 머지않아 '봉사와 기부'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G

글·문정선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사진·한국대학생자원봉사원정대V

빅뱅의 새 앨범 '투나잇'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3위를 차지했다.

이제는 돌아와 무대 위에 선 '성숙 빅뱅'

2년 만의 컴백앨범 '투나잇'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3위

2년3개월 만에 돌아온 빅뱅의 기세가 무섭다. 지난 2월 24일 0시를 기해 발표된 네번째 미니앨범 '투나잇' 수록 6곡이 한때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부터 6위까지를 휩쓴 데 이어 음반발매 5일 만에 10만 장을 돌파했고, 뮤직비디오 공개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1백만 건을 돌파했다.

빅뱅의 새 앨범은 미국 빌보드의 히트시커스(Heatseekers) 차트와 월드앨범 차트(3위), 미국과 유럽의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0위권에 오르며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SBS에서는 빅뱅의 컴백을 위해 〈더 빅뱅쇼〉를 기획해 지난 2월 27일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내보냈고, 케이블 음악채널 Mnet도 지난 3월3일 1시간 분량의 빅뱅 컴백쇼 〈빅뱅 TV 라이브〉를 방송하는 등 빅뱅의 컴백은 화려했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서울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빅뱅은 국내 음악산업 구조에서 아이돌로 사는 고충과 선배 그룹으로서의 책임감이 커보였다. 이들은 "후배 그룹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쎄시봉 선배들처럼 진짜 음악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했다.

긴 공백에서 돌아온 빅뱅은 스스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지드래곤은 "이전까지 성장하는 아이돌이었다면 이제는 뮤지션에 가까워진 모습이고, 이전에는 그룹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5명의 아티스트가 콜래버레이션(Collaboration·공동작업)으로 뭉친 느낌"이라고 했다.

YG 엔터테인먼트

태양도 "'투나잇'은 지난 2년간 각자 개별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이 충분히 발휘된 앨범"이라며 "음악적 깊이나 각자의 색깔 등 모두 많이 성숙한 것 같고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빅뱅은 데뷔 당시 자작곡 능력을 갖춰 '뮤지션형 아이돌'로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빅뱅은 아이돌 시장에서 음악의 트렌드를 주도했다.

성장하는 아이돌에서 완성형 뮤지션으로

지드래곤은 "사실 아이돌 그룹은 5~6명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맞춰진 춤을 추고 웃음을 짓는 정형화된 모습이 있다. 나와 탑의 듀엣(GD&TOP)이 '마음 맞는 애들끼리 원하는 음악으로 자유롭게 무대에서 뛰어다녀도 되는구나'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후배 아이돌에게도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분방하게 음악을 해왔다. 아이돌의 틀에 맞추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꼭 아티스트가 될 거야'라는 의식으로 음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탑도 "빅뱅이 가진 뮤지션의 이미지는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대중이 만들어준 옷이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오빠·동생 같은 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빅뱅은 2006년 데뷔했고 올해로 활동 5년째로 접어들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아이돌 그룹이 5년차에 팀이 해체 혹은 균열이 생기면서 가요계에는 '5년차 징크스'란 말이 생겨났다.

아이돌의 원조로 꼽히는 H.O.T가 5년 만에 해체됐고, god 이후 아이돌 열풍을 지핀 '2세대 아이돌의 선두' 동방신기가 데뷔 5년이 되던 해 분열됐다. 아이돌의 갈 길과 정체성에 고민이 있었을 빅뱅 멤버들도 5년차 행보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5년차가 되니, 아이돌들이 쉽게 헤어지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을 좋아서 한다는 것이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태양)

멤버들 진지한 소통으로 '5년차 징크스' 깬다

"그룹활동을 5, 6년 하다 보면 멤버들도 각자의 생활이 확고해지고,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는 시기가 5년인 것 같다. 그럴 때일수록 멤버들과 모여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옳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면 된다."(대성)

빅뱅은 훗날 각자의 음악과 활동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도 빅뱅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는 게 꿈이라고 했다. 언젠가 영화 〈샤인 어 라이트〉를 보며 롤링스톤스처럼 60대에 콘서트를 하자는 약속도 했다. 요즘 화제인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등 '쎄시봉' 선배들처럼 대중

YG 엔터테인먼트

2년3개월 만에 뭉친 빅뱅은 4번째 미니앨범 '투나잇'을 발표했다.

과 함께 커나가고 싶다 했다.

'투나잇'이 발표와 동시에 해외차트에도 오른 것을 두고 지드래곤은 "다른 나라 아티스트와 경쟁하는 느낌이어서 책임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더 노력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긴장해야겠지만, 각 나라 입맛에 맞추는 상황이 되니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빅뱅은 당분간 일본시장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욕심도 없었다는 미국진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탑은 "해외활동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어, 성향과 방향만 맞으면 많은 시도를 해볼 생각"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5월 일본 전국투어로 해외활동 본격화

지드래곤은 "YG는 사운드 면에서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다. 거기에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잘 믹스돼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는 게 빅뱅 음악의 장점"이라 했고, 태양은 "현재 한국적 정서가 세계인의 관심을 얻고 있다. 한류는 최정점에 달해 있다. 이런 물결 때문에 우리 음악이 더 알려진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빅뱅은 5월 일본 전국투어에 나서고 7월에 다시 국내에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선다. 지난 2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는 국내활동에 큰 비중을 둔다는 생각이다.

빅뱅의 이번 앨범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요소가 동시에 들어 있는 '디지로그'다. 자극적인 전자사운드를 배제하고 어쿠스틱 기타 등 아날로그 악기를 많이 사용했다. 자극적인 리듬에 귀 아픈 대중을 위해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에 중점을 뒀다.

타이틀곡 '투나잇'은 2009년 만들어진 곡으로 1년 반 동안 수정을 거쳤고, 멤버들은 '불후의 명곡'이라 불렀다. '카페'에선 기타, 드럼, 피아노 등 어쿠스틱 악기 연주가 전면에 배치됐다. G

글 · 김원겸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미륵산에 올라 바라본 통영 앞바다. 매물도, 소매물도 등 크고 작은 섬 여행은 덤으로 즐길 수 있다.

눈부신 봄바다에 취하고 향긋한 봄맛에 반하다

통영에 봄이 왔다. 바다에는 기름진 봄 햇살이 자글거리고 산양해안도로에는 동백이 붉은 꽃을 피워물었다. 통영의 봄은 식탁에도 어김없이 찾아들었다. 도다리쑥국과 멍게비빔밥은 특유의 향긋함으로 미식가를 유혹한다. 새벽녘 서호시장에서 맛보는 시락국에는 뱃사람들의 건강한 활력이 넘쳐난다. 햇빛 좋은 봄날, 통영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자.

이맘때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다. 통영이다. 꽃샘추위라며 수은주는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지만, 통영은 훈훈하기만 하다.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이마를 어루만지고 짭조름한 소금냄새가 코를 간질인다.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눈부신 햇살과 어룽거리는 아지랑이에 봄 멀미가 일어난다.

통영의 봄 풍경도 여행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봄 통영이 선사하는 맛 역시 이에 못지않다. 아니, 풍경보다 오히려 즐거움이 더할

수도 있겠다.

통영의 봄 음식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놓이는 것이 도다리쑥국이다. 통영 사람들은 아무리 동백이 낭자하게 떨어지고 신록이 번져도 도다리쑥국 한 그릇을 먹기 전에는 아직 봄이 아니라고 한다. 강구 안 식당 문앞에 '도다리쑥국'이라는 메뉴판이 걸려야 비로소 통영에 봄이 당도한 것이다.

도다리는 바다를, 쑥은 뭍을 대표하는 봄의 전령이다. 도다리는 봄이 되면 산란을 끝내고 살이 토실토실 차오르는데, 살이 부드럽고 뼈도 연한 도다리와 언 땅을 뚫고 올라온 향긋한 약쑥이 만난 도다리쑥국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보양식이다.

도다리쑥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절반 정도로 자른 도다리를 넣고 끓인다. 도다리가 완전히 익은 뒤 쑥을 넣는데 너무 일찍 넣으면 쑥이 풀어지고, 향이 사라진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항. 소박한 어촌마을은 남해 여행의 필수코스로 꼽힌다.

쑥은 거문도, 욕지도, 사량도, 한산도 등 남해 섬들의 논둑길 밭둑길에서 자란 것을 쓴다. 비닐하우스 쑥은 도다리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 조미료도 일절 쓰지 않는다.

입속으로 밀려드는 봄내음 도다리쑥국·멍게비빔밥

도다리 살의 쫄깃한 질감과 향긋하면서도 강한 쑥의 냄새가 어울린 맛은 어느 문호의 글이나 고급 사진기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도다리 살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녹는다. 도다리쑥국이 가장 맛있을 때는 3~4월. 이때면 알이 통통하게 차고 살도 여문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도다리쑥국과 함께 통영의 봄을 책임지는 맛이 멍게비빔밥이다. 한입 입에 넣고 눈을 감으면 바다를 머금은 듯한 기분이 든다. 멍게비빔밥에 들어가는 것은 멍게와 통깨, 김 가루, 참기름 4가지. 재료가 더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것이 통영 사람들의 설명이다.

고유한 맛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멍게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알이 눌리지 않게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밥과 멍게, 양념을 삭삭 비벼야 한다. 멍게도 꼭꼭 오래 씹어보자. 바다 냄새가 더욱 진하게 퍼질 것이다.

뱃사람들의 도시답게 통영에는 해장국도 먹을 만한 것이 많다. 통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시락국이다. 시래깃국을 일컫는 사투리다.

시락국은 장어머리를 고아낸 국물에 된장을 풀고 무청을 넣어 끓여내는데, 산초(제피)가루와 김 가루, 잘게 썬 고추와 부추무침을 먹는 사람 입맛대로 넣는다. 뜨끈한 국물이 맵싸한 산초가루의 향과 어우러져 시원한 맛을 낸다.

시락국과 함께 통영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해장국은 졸복국이다. 작은 붕어 크기의 졸복을 넣고 미나리, 콩나물과 함께 우려낸 국물은 진하면서도 담백하다.

국을 맛있게 먹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식초를 조금 넣을 것. 국물이 진해진다. 두번째는 나중에 뚝배기째로 들고서 국물을 후루룩 남김없이 마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좀 낯설지만 쑤기미 매운탕이라는 음식이 있다. 쑤기미는 볼락과의 생선이다. 양식이 되지 않아 자연산만을 쓴다.

매운탕 마니아들은 삼식이 매운탕, 볼락 매운탕과 함께 쑤기미 매운탕을 최고로 친다. 고춧가루로만 양념하는데 국물맛이 개운하고 담백하기 그지없다. 살은 아귀와 삼식이의 중간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다.

통영에 갔는데 충무김밥을 먹지 않는다면 서운하다. 1960~70년, 부산과 여수, 거제 등을 오가는 뱃길의 중심지였던 통영 여객터미널에는 언제나 뱃사람과 상인들이 북적였고, 이들을 상대로 한 요깃거리는 늘 인기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충무김밥이다. 간단하고 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고 한다. 충무김밥은 맨 김으로 싼 밥과 석박김치라고 불리는 무김치, 그리고 시락국이 전부다. 짠맛보단 시원한 맛과 매콤한 맛이 우선인 석박김치는 사각사각 씹는 맛이 일품이다.

길 떠나는 어부들을 상대로 팔던 음식이어서 젓가락 대신 이쑤시개를 사용한다는 것도 특징.

통영문화마당 앞에는 '원조'를 내건 충무김밥집이 늘어서 있다. 맨밥을 김으로 싸고 주꾸미, 갑오징어 무침과 무김치를 곁들여 먹는다.

통영의 별미, 충무김밥과 오미사꿀빵

경주에 황남빵이 있고 안흥에 찐빵이 있다면, 통영에는 오미사꿀빵이 있다. 1960년대, 오미사꿀빵집의 주인 할아버지가 밀가루 배급을 받던 시절, 빵을 만들어서 하나 둘 팔았는데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이 빵집에 간판이 없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오미사 옆집 빵집'이라고 불렀다.

오미사는 당시 빵집 옆에 있던 세탁소 이름. 세월이 흘러 오미사는 없어지고 '오미사 옆집'으로 불리던 꿀빵집이 '오미사'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팥소를 넣어 튀겨낸 빵을 끈적끈적한 물엿에 담은 후 깨를 뿌려낸다. 앞치마를 한 주인 할아버지가 정성껏 빵을 빚는 풍모가 '장인'을 연상케 한다. 오전 10시쯤 문을 여는데 그날 팔 분량만을 만들어 오후 서너 시면 다 팔고 문을 닫는다.

통영은 예술의 고장이다. 시인 유치환과 김춘수, 작곡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이 통영에서 태어났다. 김춘수 시인은 통영이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있다'고 했고 윤이상은 미륵도를 '우주의 소리를 들은 곳'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박경리, 시조시인 김상옥의 고향도 통영이다. 화가 이중섭도 한때 통영에 머물며 '통영 풍경' '복사꽃 핀 마을' 등의 그림을 그렸다.

통영 봉평동의 전혁림 미술관은 통영의 눈부시게 푸른 바다와 강렬한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얼마 전 타계한 전혁림 화백은 한국 추상화의 대가로 꼽힌다. 통영에서 나고 자란 그는, 미술학교 한번 변변히 다니지 못했지만, 미국의 한 미술잡지에 한국 10대 화가로 꼽

아름다운 벽화마을 동피랑.

정박해 있는 어선 위로 봄햇살이 쏟아져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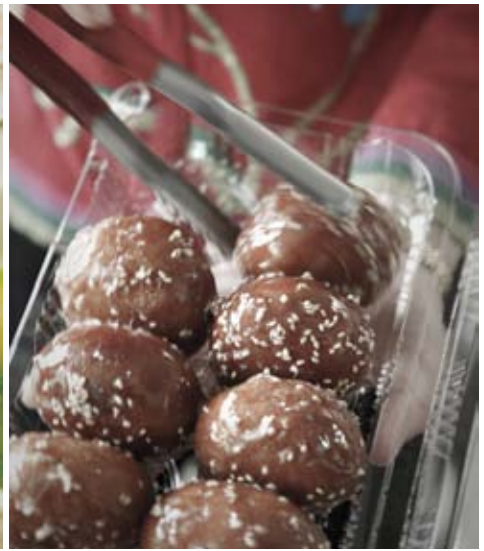
히기도 했다.

전 화백은 1977년부터 고향 통영으로 내려와 통영과 다도해를 화폭에 담았다. 현재 전혁림 화백의 아들인 전영근 화백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혁림 화백의 작품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통영은 청마 유치환과 정운 이영도의 애틋한 러브스토리가 스민 곳이기도 하다. 청마는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여중에서 교편을 잡던 중 이호우와 남매 시인인 이영도를 만나 사랑에 빠져 무려 5천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청마 유치환의 러브스토리가 스민 곳

현재 중앙동 우체국은 골목 안에 있어 산만하지만 '행복'에 나오는 바로 그 우체국이다. 망일봉 청마문학관에는 청마 흉상과 빛바랜 육필원고, 유품 1백여 점이 전시돼 있고 청마문학관 뒤편에는 청마 생가도 복원돼 있다.

최근 통영의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 동피랑이다. 철거될 운명이었던 마을이었지만 벽화가 그려지면서 이제는 주말이면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북적인다. 대한민국 전역에 부는 벽화마을 붐은 이곳 동피랑에서 시작됐다.

통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대표 먹을거리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도다리쑥국, 오미사꿀빵, 충무김밥, 멍게비빔밥.

유치환문학관의 유치환 흉상.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하하하〉에서 문소리가 살던 집이 바로 이 동네다.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의 벽에는 커다란 고래와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림이 그려졌다. 온통 푸른 바다로 가득 찬 벽도 있다.

골목을 걷는 내내 커다란 수족관 속을 걸어다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동피랑 언덕에 오르면 아름다운 통영항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왕 통영까지 왔다면 소매물도까지 가보자. 선착장에서 내려 정상인 망태봉까지는 넉넉잡아 30분. 망태봉에서는 등대섬이 내려다보인다. CF나 관광 안내 포스터에서 봤던 그 풍경이다.

얼마 전 KBS 인기 프로그램 〈1박 2일〉에도 소개됐던 곳이다. 썰물 때면 소매물도에서 등대섬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 · 행 · 정 · 보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판암 방면 대전외곽 순환도로를 탄다. 산내분기점에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전혁림미술관**(055-645-7349)은 충무마리나 리조트에서 67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통영시청소년 수련관 방향으로 좌회전한다. **청마문학관**(055-650-4591)은 통영기상대 앞에 있다. **통영여객선터미널**(055-642-0116)에서 소매물도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먹을거리 도다리쑥국은 서호시장 입구에 있는 **분소식당**(055-644-0495)이 40년 넘게 이름을 떨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시락국으로 유명한 **원조시락국**(055-646-5973)이 있다. 보통 새벽 3시 반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 반찬 통이 테이블 앞에 진열되어 있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쑤기미 매운탕은 적십자병원 근처에 있는 **진미식당**(055-643-0240)이 유명하다. 진미식당 가까운 곳에 **오미사꿀빵**(055-645-3230)이 있다. 멍게비빔밥은 통영문화마당 근처에 있는 **통영맛집**(055-641-0109)이 잘한다. 통영문화마당 앞에 충무김밥집이 늘어서 있다. **뚱보할매김밥**(055-645-2619)이 유명하다. **한일김밥**(055-645-2647)은 포장만 가능하다. **만성복집**(055-645-2140)과 **풍만식당**(055-641-6037)은 통영 토박이들이 추천하는 복집이다.

숙박 **통영E.S리조트**(055-644-0087, www.esresort.co.kr)는 미륵도 관광특구에 자리한 초특급 리조트다. 모든 객실이 한산도를 바라보고 있다. 아침에 해가 가왕도에서 떠올라 우측 욕지도 쪽으로 지는 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새봄에 만나는 바흐와 리스트

한기정 피아노 독주회

피아니스트 한기정이 독주회를 연다. 예원 콩쿠르 금상, 〈중앙일보〉 콩쿠르 1위 입상을 통해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온 한씨는 예원 챔버 오케스트라와 이탈리아 순회연주를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연주자로서 기량을 넓혀나가고 있다. 예원 챔버 오케스트라, 대전시향, 창원시립마산시향, 제주시향 등과의 협연을 했고, 러시아 핀란드, 이탈리아, 미국, 중국, 몽골 등 해외에서의 연주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예술의 전당 독주회에서는 바흐의 '더 웰 템퍼드 클래비어 북 I' '잉글리시 스위트' 등과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중 '고독 속 신의 축복',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 중 '장송곡' 등을 연주한다. 바흐의 '더 웰 템퍼드 클래비어 북 I'은 한 곡 한 곡 저마다 특징 있는 처리로 유명한 곡집이다. 피아노와 오르간의 기준으로 작곡된 곡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멜로디, 환상적인 곡상, 변화가 풍부한 리듬을 선보인다.

프란츠 리스트의 곡들은 낭만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교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흐와 프란츠 리스트의 곡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은 웅장하면서도 심오한 정서를 표현해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G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일시 2011년 3월 22일 **장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관람료** 전석 2만원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436-5929

콘서트 쎄시봉 그후 45년 조영남 콘서트-전주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화제가 됐던 1970년대 문화 아지트 쎄시봉. 1966년 쎄시봉에서의 첫 무대를 가진 후 지금까지 45년의 세월을 돌이키며 그 시절의 음악과 함께 추억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 2011년 4월 24일 **장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관람료**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600-4534

전시 국제만화예술축제

'예술과 유머'란 주제로 국내 최초로 마련한 '국제만화예술축제(ICAFE)' 가 고양 아람누리의 누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아트카툰, 일러스트, 캐리커처, 그래픽노블, 현대미술 등의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4백여 점이 선보인다.

일시 2011년 3월 20일까지 **장소**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관람료** 성인 9천원 학생 7천원 유아 5천원 **문의** 1577-7766

3월 둘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2월 27일~3월 5일

곡명	가수
1 Tonight	빅뱅
2 Cafe	빅뱅
3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 (IU)
4 What Is Right	빅뱅
5 내꺼중에 최고	에이트 이현
6 Dreaming (드림하이 OST)	김수현
7 Somebody To Love	빅뱅
8 Hands Up	빅뱅
9 톡톡 (Tok Tok) (Feat. Soya)	마이티 마우스
10 Black & White	G.NA

있잖아요, 엄마…

글과 그림 · 최영순

교육이란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다. – 버나드 쇼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을거야"

일러스트·이우정

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아트스피치 원장

몇 년 전, 둘째 아들의 입학식 날이었다. 그날도 강의 스케줄이 바빠 참석할 수 없었던 나는 대신 선물을 준비했다. 아들 녀석이 평소 갖고 싶어했던 브랜드 운동화였다.

"오늘 못 가서 미안. 우리 아들 입학 축하한다."

선물박스를 받자 시무룩했던 둘째의 표정이 급속히 밝아졌다. 꺼내서 신어보더니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며 한껏 들떴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걸. 나는 기어이 안 해도 될 말을 꺼내고 말았다. "이제 중학생도 됐으니까 게임은 줄이고 공부 좀 해야지?" 순간, 녀석의 표정이 다시 시무룩해졌다. 속으로 '아차' 싶었다. 굳이 아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타이밍에 그 얘길 했어야만 했을까. 괜히 선물 주고 인심만 잃었다.

입학, 졸업, 설날, 결혼식 등 인생에서 의미 있는 날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 바로 덕담이다. 그러나 우리의 덕담은 알고 보면 '마이너스 대화법'에 속한다. 당부를 가장한 잔소리인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선물 주는 김에 평소에 꾹꾹 참아왔던 잔소리를 덕담인 양 풀어놓는다. "어떻게 올해는 시집 좀 가야지?" "이제 대학 졸업도 했으니 빨리 취직해야지?"

덕담은 알고 보면 '마이너스 대화'에 속한다. 하지만 선물 주고 본전도 못 찾는 마이너스 덕담은 이제 그만, 상대방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플러스 덕담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더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문제는 그것이 가장 아픈 곳을 찌른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굳이 당부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노력하지만 지금 당장은 잘 안돼서 속상한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걸 콕 짚어주니 얼마나 아픈가. 자녀의 행복지수, 자신감만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덕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가장 좋은 대안은 칭찬이다. 상대방이 그동안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는 춤추고 노래하는 데는 선수니까, 중학교 가서도 스타가 돼야 한다!" "우리 ○○가 제일 잘하는 농구를 할 때처럼, 고등학교 가서도 최선을 다해 봐. 그럼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일 때문에 아이한테 소홀했던 부모라면 '사과덕담'도 좋다. 솔직하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같이 뛰자고 하는 것이다. "엄마가 직장 다니느라 우리 딸 많이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올해부터는 좀 일찍 퇴근해서 저녁밥 차려줄게." "아빠가 우리 ○○ 많이 못 밀어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 아빠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 우리 같이 뛰어보자, 아들!"

이렇게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면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선물 주고 본전도 못 찾는 마이너스 덕담은 이제 그만, 상대방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플러스 덕담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더해 보는 것은 어떨까. G

일회용 나무?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은 일회용이지만
종이컵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20년을 자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한 해에 약 120억개 정도에
13만 2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나무 4,800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양과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